

누구나 학습마을

누구나 학습마을을 함께 만든 사람들

매탄4동 강영신 강윤성 경유림 고세영 김규리 김동숙 김민지 김석태  
김철화 김성진 김소라 김연수 김영선 김옥희 김윤자 김지영 김진욱  
김혜미 남경희 노문선 박나현 박 달 박형순 배은주 백종민 서경옥  
손채수 송주희 안효진 유혜린 윤금주 윤태관 이기원 이병덕 이병덕  
이소영 이안자 이은주 이필대 이호춘 임지울 임지훈 장대현 장용욱  
장희숙 전말연 정정숙 정혜진 조진행 최기원 추명순 한근순 한석규  
한선미 한소현 한주형

조원1동 강금선 강남희 강영신 곽민서 길하나 김미서 김민아 김민정  
김병수 김수현 김영소 김은영 김은희 김인숙 김지영 김진아 김하은  
김한별 김효임 김희연 노유미 독고앤 민영희 박경실 박선영 박정원  
박희자 배숙녀 서광석 서정남 손은홍 송민희 신경우 안문자 안영욱  
양훈도 오명순 오승택 오유미 오유빈 윤금주 윤명희 윤희진 이기쁨  
이기자 이매화 이명숙 이미숙 이민복 이복순 이아현 이영숙 이은서  
이은주 이정금 이지수 이해영 장선자 전미령 정보라 정순옥 조연정  
조윤정 하상봉 한태정 황규덕 황선우 황재봉

화서1동 강도희 강민지 강주선 강준구 강혜용 곽경아 곽진희 권민영  
김갑균 김미라 김미향 김선미 김세옥 김수경 김순이 김슬비 김승중  
김연정 김영철 김윤숙 김정연 김지희 김진희 김혜림 김효연 리은소연  
박상민 박선영 박종복 서승룡 송병선 송보혜 송재규 신민철 심인숙  
안병철 양주현 양혜숙 엄미화 엄미희 원증연 유명선 유순규 유윤희  
유혜숙 육근영 윤미나 이경미 이명수 이미영 이상영 이성숙 이성희  
이윤미 이정원 이종숙 이한일 이희정 장영미 정소년 조기동 조미란  
주옥경 차선화 최미자 최순영 최영주 최옥남 최옥분 최은선 최태향  
한민석 한배수 한주은 허가람 허선화 허진 홍송자 황정하

김미영 김지영 류명화 박은미 신은미

2013-2015년 경기도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누구나  
학습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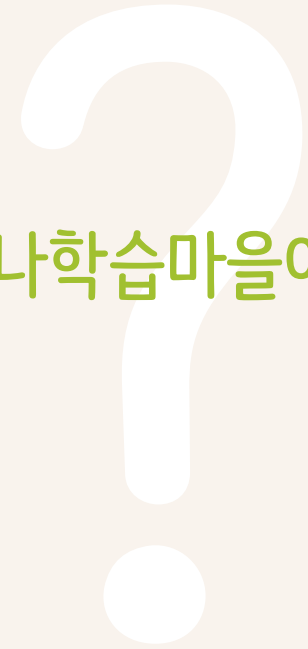


# 누구나학습마을

2013-2015년 경기도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누구나 학습마을

누구나학습마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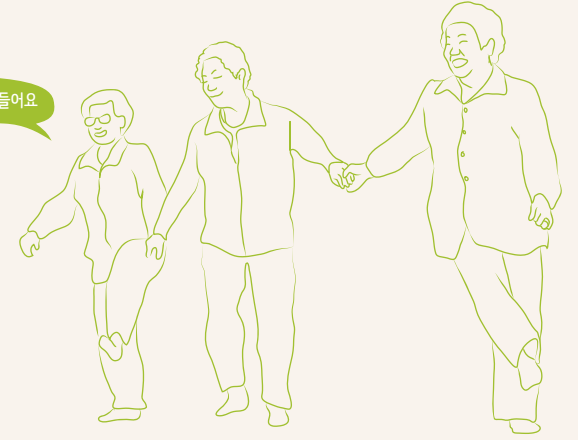
꽃으로 장식해요



같이 연주하실래요?



스마트폰을 차근차근 배워요



화투로 춤을 만들어요

누구나 가르칠 게 있고,  
누구나 필요한 학습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8학년 이야기를 그려요



나는 춤을 잘춰요



나는 뜨개질을 잘해요



요가를 같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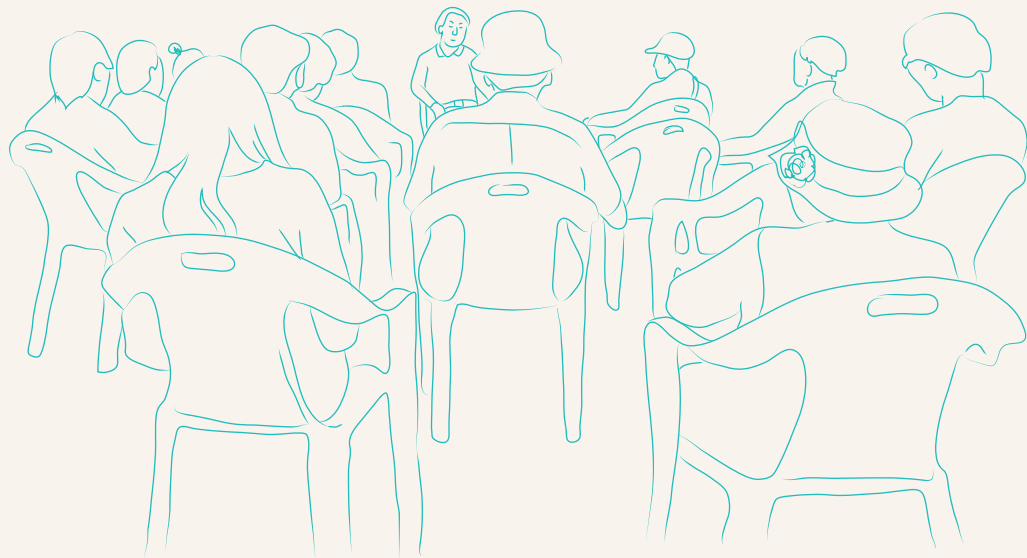


손맛을 배우고 함께 먹어요

학력, 나이, 남녀,  
직업, 소득, 피부색...  
상관없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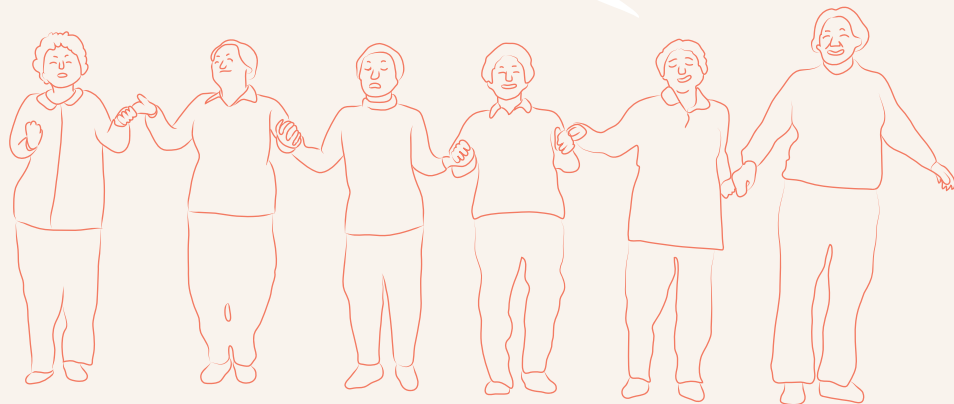
화폐가 아니라  
서로간의 배움과 나눔이  
수강료입니다





집, 회사, 카페, 거리, 공원,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어디든 학습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배움으로 만난 주민들이  
친해지고 함께 변화에 도전하는 것,  
누구나 학습마을의 꿈입니다



# Contents 목차

- 5 누구나학습마을이란?
- 14 **여는 글** 누구나학습마을은 여전히 미생, 그러나 희망 - 새로운 리더의 성장

1부

## 누구나학교, 마을로 들어가다

- 24 누구나학습마을 사업개요
- 28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 38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 48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2부

## 함께 크는 마을과 사람들

- 60 마을로 간 코디네이터
- 76 공간이 자란다!
- 84 마을에서 크는 사람들

3부

## 다시, 누구나학습마을을 시작하다

- 102 누구나학습마을의 험거움과 촘촘함
- 110 주민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마을
- 116 다시 보고 미래 찾기

- 134 **맺는 글** 누구나학습마을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

## 부록

- 139 마을별 프로그램
- 142 언론보도현황
- 144 기획기사모음

# 누구나 학습마을은 여전히 미생, 그러나 희망

- 새로운 리더의 성장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 1988년 쌍문동 골목길은 판타지인가

이전에는 연출진이 의도적으로 '남편 찾기'를 유도했고 이 영리한 전략이 꽤 맞아떨어졌습니다만 <응답하라 1988>의 경우 이전 시리즈에 비해 '남편 찾기' 흡입력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청춘 남녀의 매력이 이전만 못해서라기보다는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연애'가 아니라 '동네'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밀한 고층과 소품 등을 통해 당시 시대의 공기를 전달함과 동시에 충실한 생활사 박물관 역할은 한 이 드라마는 저와 같은 세대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단지 복고로서의 값싼 '감성팔이' 드라마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퇴행적 복고가 아닌 더불어 어울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이 드라마의 성공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린 유아를 이웃들이 함께 챙기는 '돌봄'이 있고,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 갈 집을 챙겨주는 '구호'가 있고, 형편 어려운 이웃집 자식의 수학여행에 쓸 돈을 슬며시 건네는 '연민'이 있고, 작은 일에도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있고, 도둑이 들었을 때는 다 함께 나서는 '연대'가 있고, 이웃집 대소사를 함께 챙기는 '우정'이 있는 곳. '1988년 쌍문동 골목길'은 마을살이의 긍정성을 극대화시켜 종합선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초입부터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현관은 키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으며 집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우리네 일상으로 보면 쌍문동의 모습은 대단한 판타지처럼 보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불어 사는 삶과 공동체에 대해 책을 통해서만 배울 뿐 그것을 체험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고립과 개인으로 치달을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1988년 쌍문동'으로 달려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적 영역을 조금씩 만들고 확장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 학습관이 도대체 왜 마을에 관심을 두는가

저희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인사말 코너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자가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관에서의 배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성장한 시민들이 지역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위의 글은 예의 그 뻔한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기관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생활과 학습이 겹쳐지지 않을 때 배움은 지적 악세사리 소품이나 단순 소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이것을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삶과 겹돌지 않는 배움,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학습의 요체이고 기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향하는 궁극적 시선은 단독자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결된 그물망, 그들이 펼쳐내는 연대의 삶이고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공간인 지역인 것입니다.

저희가 마을에 관심을 두는 또 다른 이유는 위탁을 받을 때 수원시로부터 요구받은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가 학습관을 만든 목적은 수원시민의 시민력 제고입니다. 그러나 120만 수원시민을 한 개의 기관이 감당한다는 것은 개미가 코끼리를 드는 격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평생학습 관련 제 기관들과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함께 저희도 제대로 성장해야 그나마 본래의 목표에 한 발자국 다가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허브 역할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는 각 지역 마을마다 학습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 기관에 찾아와서

학습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것은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학습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작동하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진 궁극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저희는 초기부터 마을에 주목해 오고 있었고 기회가 되었을 때 충실히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 ‘누구나 학습 마을’과 ‘누구나 학교’의 관계

누구나 학습 마을은 누구나 학교의 지역 버전이 아닙니다.

누구나 학교는 지식을 매개로 가르침과 배움의 단단한 경계를 허물고 강사 위주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 생태계를 향해 가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에서 전개되는 누구나 학교는 그야말로 ‘지식’이 중심입니다. 학습욕구에 의해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그 지적 욕구가 해소되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학교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누구나 학습 마을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파나 공유가 아닌 지식을 매개로 한 관계망의 구축입니다.

지역에서는 먼저 물리적 공간의 사이즈 때문이라도 학습을 매개로 모인 지역민들이 그것을 계기로 관계를 트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관계의 질이 무엇이나가 중요합니다만 일단 ‘낯섦’과 ‘경계’를 풀고 ‘친밀’과 ‘우정’으로 전환될 최소 필요조건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은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마을에서는 먼저 낮은 차원이라도 경계를 풀고 이해의 싹을 틔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학교가 ‘학습기관’ ‘강사’ 중심의 학습 생태계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질서를 지향한다고 하면 누구나학습마을은 지식을 매개로 한 마을 만들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학습마을은 누구나학교의 지역판이 아닌 것입니다.

### 서로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응답하라 1988>에는 둘째 딸의 서러운 하소연에 다음과 같은 아빠의 나직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런다.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다”

처음이란 늘 실수와 후회를 낳기 십상인데 저희 학습관도 홈그라운드를 벗어난 지역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해서, 수강접수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일. 그런 익숙한 패턴을 벗어나는 것은 모험이자 실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원금의 축소로 인원이 줄었지만 코디네이터로 새로 참여한 3명도 지역 사업이 처음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망과 비전을 공유하고 사업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공대가 활약하는 영화를 보면 여러 조로 나뉘어 적진에 침투하기 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일초도 다르지 않게 서로 시간을 맞추는 일. 특공대가 시간이 어긋나면 제대로 임무 완수를 할 수 없듯 누구나학습마을의 경우 서로 다른 공간과 조건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비전과 사업방향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에 저희는 특별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멘토로 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토론과 과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은연중에 지역별로 묘한 경쟁심이 발동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혼란과 차이를 줄이는 것은 결국 학습과 토론이었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니만큼 다양한 방식의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같은 방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은 중요합니다. 학습과 토론, 이것은 새로운 일을 할 때 반드시 공들여 갖춰야 할 상비약입니다.

### 새로운 리더의 성장

누구나학습마을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사람의 성장입니다. 낯선 마을, 새로운 환경에서 혈혈단신 부딪치고 적응해야 하는 코디들에게 ‘하루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깨지고 버티며 코디들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발굴, 지속가능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시스템 구축이 그것입니다.

전문가의 지원이나 인력의 배치가 이뤄지면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다가도 그 인력이 부재할 경우 요요현상처럼 다시 원상태로 퇴행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이라고 해서 그러한 패턴을 노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한 것은 '코디 그 이후'였습니다. 이 주민리더의 발굴과 성장이 없으면 누구나학습마을은 시도로서는 의미 있으며 성과로서는 실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의 지난한 노고가 결실을 맺어 이제 3개 마을에서 각각 2명 씩의 주민리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일이 항용 그렇듯 리더를 선정했다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코디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일을 마을 주민이 이어서 한다는 것은 꽤 많은 시련과 돌발적 상황을 예견케합니다. 다행히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집단적 의지와 결의를 내보여 주어서 한결 든든합니다.

“코디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 역할이 더 생긴다는 것 아니냐. 운영위 단위에서 더 보완해 나가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홍보를 통해 이 사업을 더 알려야 하는데 내가 50명을 책임지겠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맡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일반 주민이 맡아서 해도 충분하다.” 누구나학습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마을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생각과 다짐이 오갔습니다.

선정된 리더 두 명의 어깨에 모든 책임을 부여해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마을 단위, 운영위원회, 기존 코디, 평생학습관 등등이 성심껏 지원하고 함께 거들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전환되어야 지속성이 만들어지고 공동체성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새로운 누구나학습마을의 시작인 셈입니다. 여전히 미생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단단해 보입니다.

###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자신의 식당, 카페, 가정집 등등을 학습 공간으로 흔쾌히 제공해 주신 지역 주민들. 주민센터에 공간을 내어 주고 기꺼이 함께 해 주신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공무원분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어려운 걸음 함께 힘을 보태주신 운영위원회 참여자분들, 남 앞에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끝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흔쾌히 제공하신 주민 강사분들, 크고 작은 일에 팔 걸어 붙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고생한 코디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관심과 경계의 눈빛에 둘러싸여 생존을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었던 세분의 코디. 누구나학습마을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의 팔할은 그분들의 욕심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그럼에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1부

# 누구나학교, 마을로 들어가다

- 24 누구나학습마을 사업개요
- 28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스스로 마을살이의 주인이 되도록 \_류명화
- 38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곳곳에서 피어나는 배움의 공동체 \_김지영
- 48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이웃에게 배우는 누구나학습마을 \_신은미

# 누구나학습마을 사업개요

## 누구나학습마을은 누구나학교의 마을편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은 지식, 경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누구나 강의를 열고,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를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 등과 마을에서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주민들의 다채로운 경험과 재능을 발굴하고 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살아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누구나학습마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누구나학습마을은 누구나학교의 마을편이 아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계기로 이웃을 알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과 함께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내고, 마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같이 도모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누구나학습마을에 사는 누구나 내 나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그것을 이웃으로부터 지지받는 것, 이것이 누구나학습마을의 꿈이다.

**사업명**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Golden Triangle프로젝트) 지원사업

### 〈누구나학습마을〉

**기간** 2013년 7월 ~ 2017년 12월

**장소**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장안구 조원1동, 팔달구 화서1동

**주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평생학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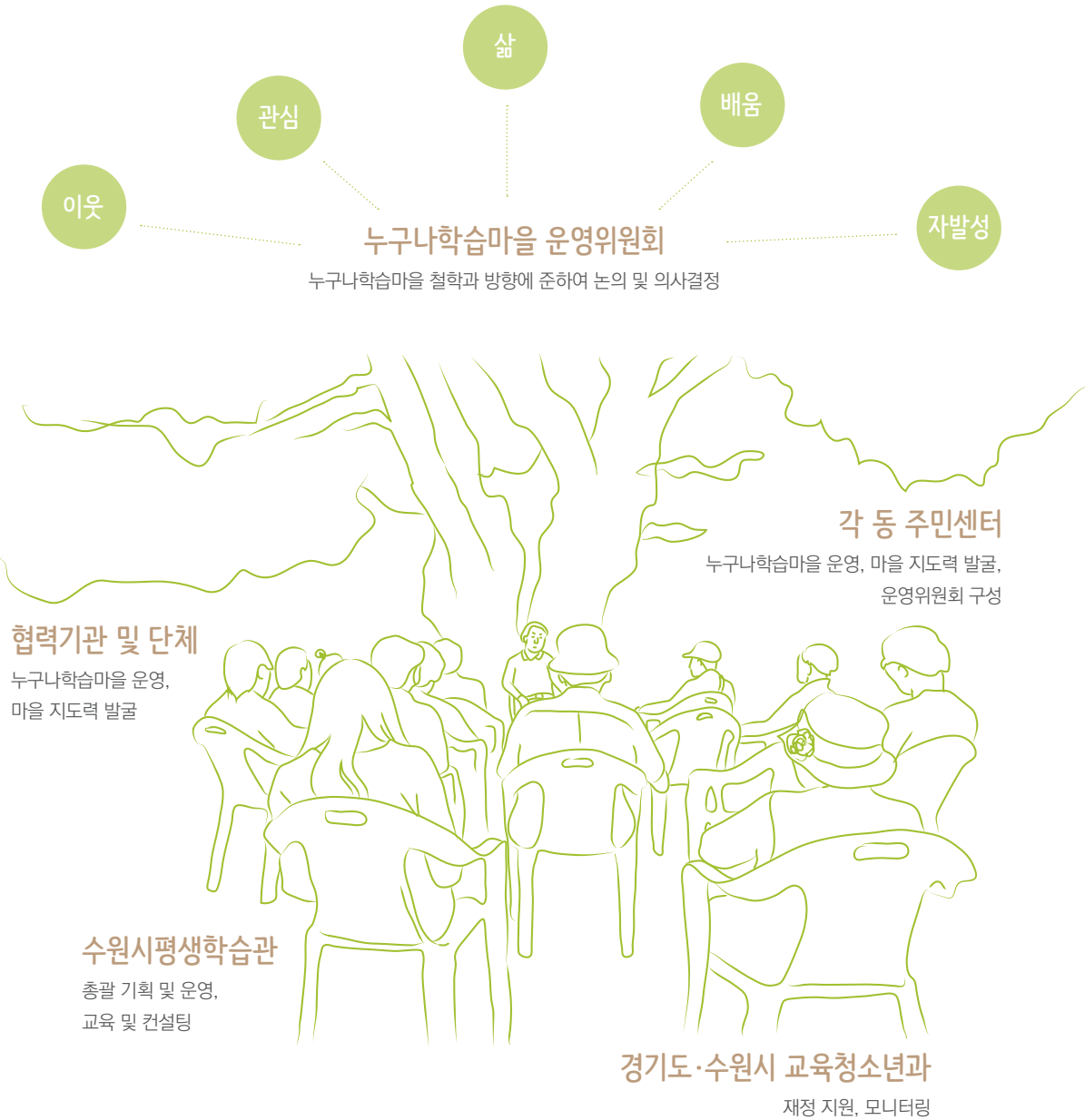
**주관** 수원시평생학습관, 매탄4동 주민센터, 조원1동 주민센터, 화서1동 주민센터

**목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으로 마을 만들기

### 내용

- 마을별 1명의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파견
-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상 학습 기획과 실행
-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 공간들의 학습자원화 및 연계
- 코디네이터 교육 및 컨설팅
- 기타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의 지원

추진체계



주요 일정

누구나학습마을 공모 및 선정 2013.6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배치 2013.7.16

1차년도 누구나학습마을 운영  
2013.8 ~ 2014.1

2차년도 누구나학습마을 운영  
2014.3 ~ 2015.2

3차년도 누구나학습마을 운영  
2015.3 ~ 2015.12

누구나학습마을 네트워크 파티  
2014.1.27

누구나학습마을 관계자 공유회  
2015. 2. 24

누구나학습마을 성과공유회  
2015.12.14 ~ 15, 22

추진실적

1차년도(씨앗기)  
2013.7-2014.1

2차년도(싹트기)  
2014.3-2015.2

3차년도(성장기)  
2015.3 - 2015.12

시·도 : 43,000천원  
학습관 : 8,950천원

시·도 : 51,999천원  
학습관 : 5,736천원

시·도 : 53,152천원  
학습관 : 6,004천원

**누구나학습마을 인식 제고**

- 누구나학습마을 공모 및 선정
- 담당 코디네이터 배치
- 마을현황 조사
- 누구나학습마을 운영
- 누구나학습마을 네트워크 파티

**누구나학습마을 가능성 실현**

- 학습거점공간 확보
- 주민강사자원 섭외
-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누구나학습마을 관계자 공유회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 기반 형성
-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
- 누구나학습마을 관계자 간담회
- 운영체계 구축

71개 강좌, 92회  
1,225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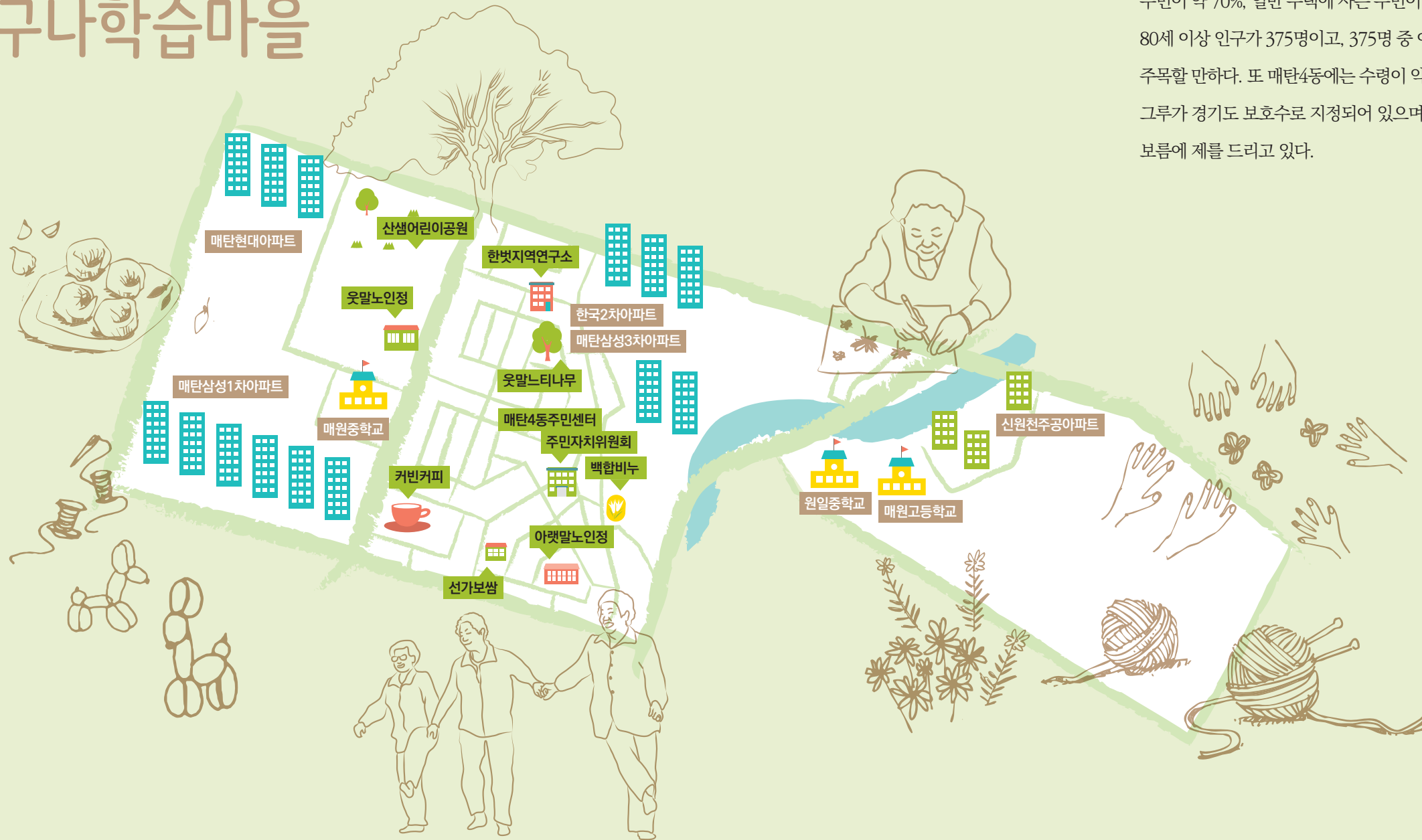
144개 강좌, 376회  
4,881명 참여

239개 강좌, 568회  
6,788명 참여

#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 매탄4동은

매탄4동의 주민은 2015년 10월 기준 약 24,800명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약 70%,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이 30% 정도이다. 이 중에 80세 이상 인구가 375명이고, 375명 중 여성이 274명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 매탄4동에는 수령이 약 400년 되는 느티나무 세 그루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적비를 세워 매년 정월 보름에 제를 드리고 있다.



## 학습마을 네트워크

- 매탄4동 주민센터
- 매탄4동 주민자치위원회
- 한벗지역연구소
- 산샘어린이공원
- 웃말노인정
- 웃말느티나무
- 백합비누
- 선가보쌈
- 커빈커피
- 아랫말노인정

#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추진과정

## 2013 { 2013. 8 ~ 2014. 1 1차년도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릴레이강의를 시작으로 25개 강좌, 32회 진행 / 주민강사 16명, 참여 542명 }

2013. 8  
누구나학습마을 설명회 진행

2013. 8. 29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및 협약식 진행

2013. 8 ~ 10  
매탄4동 벼룩시장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산샘어린이공원

2013. 9. 24  
누구나학습마을 설명회 및 강사  
발굴(마을만들기협의회)

2013. 12. 30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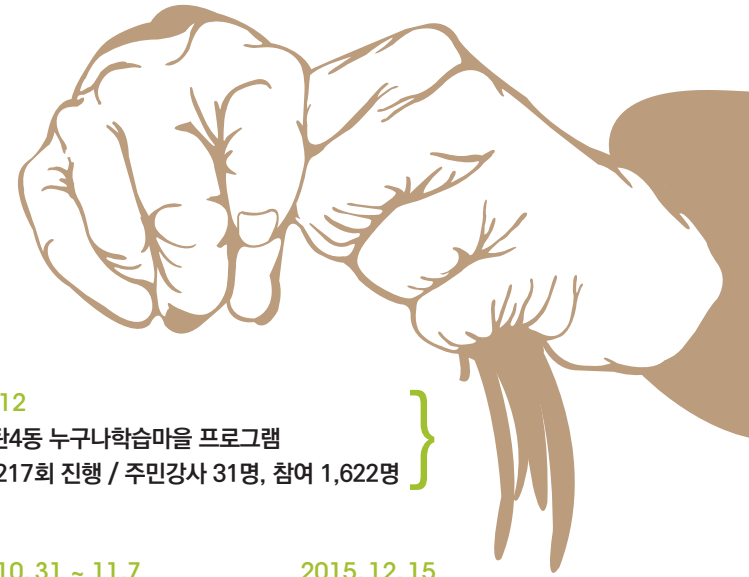
## 2014 { 2014. 3 ~ 12 2차년도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49개 강좌, 138회 진행 / 주민강사 24명, 참여 1,778명 }

2014. 3 ~ 6 / 8 ~ 9  
매탄4동 벼룩시장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산샘어린이공원

2014. 8. 13 ~ 11. 30  
누구나동네밥상  
@한벗지역사회연구소

2014. 12. 1 ~ 12. 8  
8학년 우리들의 전시회  
@산드래미 갤러리

2014. 12. 11 ~ 12. 15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작품 전시회  
@산드래미 갤러리



## 2015 { 2015. 3 ~ 12 3차년도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93개 강좌, 217회 진행 / 주민강사 31명, 참여 1,622명 }

2015. 3 ~ 10  
매탄4동 벼룩시장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산샘어린이공원,  
옹달샘어린이공원

2015. 8 ~ 12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2015. 10. 31 ~ 11. 7  
2015년 8학년 우리들의 전시회1  
@산드래미 갤러리

2015. 12. 3  
주민자치작품발표회  
누구나학습마을 작품전시회  
@산드래미 갤러리

2015. 12. 15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성과공유회

2015. 12. 21 ~ 12. 24  
2015년 8학년 우리들의 전시회2  
@경기도청 갤러리 별

# 스스로 마을살이의 주인이 되도록

글 류명화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누구나학습마을이 재미있고 좋다는 소문은 나는데 소문이 널리 퍼지지 않고 되돌아와요. ‘시간이 없어요’라는 말로. 아직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학습마을. 듣기만 해도 정감 가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첫째는 마을에서 맘껏 놀았던 어릴 적 기억 때문이고, 둘째는 여성 단체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지역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엔 경로당의 어르신들,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한 강좌들이 의미가 있지요. 노인정 어르신을 대상으로 꽃꽂이·라인댄스 등의 강좌를 열어 마을 어르신들의 재능과 지혜를 끌어 내기 위해 눈맞춤하고 있어요.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추석에 송편을 빚고 꽃꽂이를 배우는 등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살이의 주인이 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네 부녀회장의 떡 만들기, 동네 커피숍에서 배우는 커피 내리기 등 마을 주민들의 재능과 마을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코디의 역할에 깊숙이 빠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에 매몰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 사람 누구나 즐거운 학습을 통해 생활을 공유하면서 정감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기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마을리더 릴레이 강의**  
노신사 이야기

처음엔 도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선 마을 리더들의 릴레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나서 중단이 되었죠.



**어르신들과 함께**  
노세노세 웃으며 놀아보세

그래서 다음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선택한 곳이 경로당이에요. 아랫말의 경우 화투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서 화투춤을 만들어 활기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했어요. 웃말에서는 꽃꽂이를 했는데 재미있어 하시면서도 너무 조용해서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시더군요.

**아랫말 느티나무, 웃말 느티나무**

나이든 느티나무 두 그루

매탄동은 대대로 살고 있는 토박이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에요. 1500년이 넘는 마을이지만 대체로 재개발이 되었고 옛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죠. 마을 역사의 유일한 증거가 아랫말과 웃말의 느티나무일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 나무를 기준으로 어디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세요. 옛 마을을 설명하고, 추억을 이야기할 때 지표가 되는 거지요. 나이든 느티나무 두 그루는 이제 점점 그 수가 줄어가는 토박이 어르신들을 닮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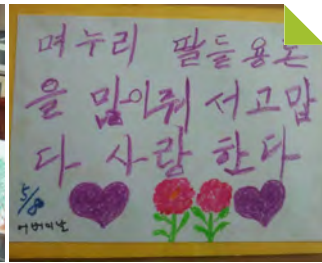


**다문화수다방**

당당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

우리 동네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낯설다고 경계를 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강좌를 열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죠.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당당한 한 사람의 주민으로 누구나학습마을에 참여하길 바랐는데, 지속되지 못했어요. 취업한 사람들도 많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다른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 아랫말노인정 8학년 미술시간

'8학년 미술시간'은 아랫말 경로당 어르신들이 2년 넘게 참여하고 계신 활동이에요. 산드래미 마을(매탄4동)의 4대 성씨를 가진 집안의 며느리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여자고 노인회장님만 남자세요. 이 며느리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회장님과는 점수도 하지 않을 만큼 과거의 전통과 습관이 익숙한 분들이지요. 작은 공연도 하는데 올해에는 드디어 무대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강사가 따로 있어요. 누구나 참여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해도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쉬운 일이 아니지요. 즐겁다고 하시다가도 항상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오면 그쪽으로 가세요. 약장사한테 밀려서 누구나학습마을은 방학하자고 하시죠.

가끔 할머니에게 뭐 잘하냐고 물으면 잘하는 게 없다고 말하시는데, "어르신 국수 잘 삶잖아요" 라고 다시 물으면, "그건 잘하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들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강사도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커피커피 동네카페에서 나누는 커피 이야기

지역에서 수업할 공간을 찾다가 카페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마침 사장님께서 커피 관련 강좌를 해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죠. 고3 학생이 시험 끝나고 엄마 따라 커피 수업에 왔다가 소감문을 남기고 갔어요. 자기는 늘 배운다는 것이 어딘가를 가야하고, 누군가 전문 선생이 있어야 하고, 책상에 앉아야 하고, 배우기 위한 조건과 틀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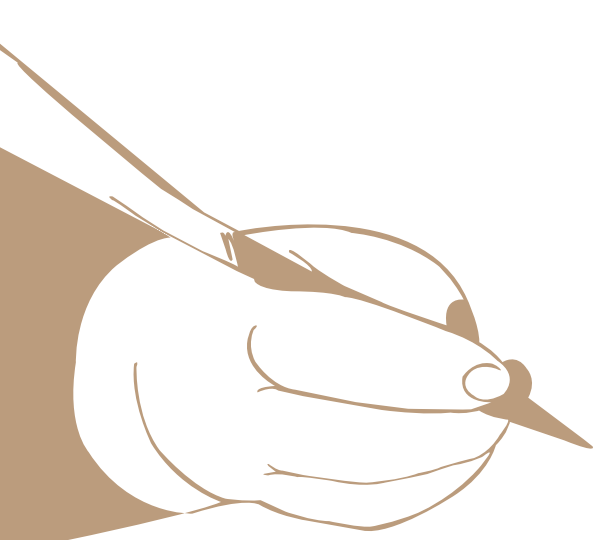


### 산드래미 갤러리 삶티이자 일티이자 놀이티

누구나학습마을에 기대했던 것은 삶티이자, 일티이자, 놀이티인 어떤 동네였어요.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약간의 돈도 벌 수 있었으면... 맨날 인계동까지 가야 해서 우리 동네에서 놀 수 있었으면 했는데, 얼마간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



#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추진과정



**2013** { 2013. 8 ~ 2014. 1  
1차년도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18개 강좌, 23회 진행 / 주민강사 13명, 참여 291명 }

2013. 11. 7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및 협약식

**2014** { 2014. 3 ~ 12  
2차년도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46개 강좌, 136회 진행 / 주민강사 31명, 참여 1,696명 }

**2015** { 2015. 3 ~ 12  
3차년도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106개 강좌, 265회 진행 / 주민강사 47명, 참여 3,753명 }

2015. 3. 24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사전 워크숍

2015. 4. 29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회의

2015. 6. 24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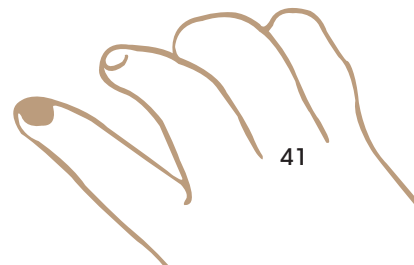
2015. 8 ~ 11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축제 기획회의(9회)

2015. 10. 1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회의

2015. 11. 5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회의

2015. 11. 7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축제 @조원초등학교

2015. 12. 15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회의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성과공유회



# 곳곳에서 피어나는 배움의 공동체

글 김지영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지역의 공간, 조직,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였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결국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거니까...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조원동 시장 한 편에 자리 잡은 '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눔터, 마돈나돈가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첫 해에는 그 가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압화 카드 만들기' '풍선 아트' '냅킨 아트' '수세미 뜨기' 등 다양한 수업을 열었습니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의 학습 공간이 조성되어 조금 더 쉽게 이웃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 등에서도 이웃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했고요. 마을 곳곳에서 배움의 공동체가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가 되어 교육을 받고 마을에 배치되었을 때, 설렘과 함께 걱정도 많았어요. 역시나 순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는 주민들과 활기찬 인사를 하지요.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만으로도 코끝 정한 감동을 느낍니다. 다른 마을보다 우리 조원1동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한 명의 주민이라도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조원1동에 많은 학습 공동체가 있어 비록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활기찬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하루를 보낸답니다.



## 대추골 녹색가게

### 호박죽 만들기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긴장도 많이 했어요. 동장님이 도와주셔서 부녀회를 통해 녹색가게에서 첫 강의를 열었죠.



마돈나돈가스, 산내음도서관,  
휴카페, 주민센터,  
조원주공2단지 탁구장,  
조원지역아동센터, 새마을문고  
문이 열린 공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강의가  
펼쳐졌어요. 산내음도서관,  
대추동이도서관, 조원주공  
2단지 안에 있는 탁구장,  
휴카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드림지역아동센터  
누구나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항상 받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강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입장이 되어본 거예요.  
그날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금당골 노인정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먹는 호박죽

배우러 왔다가 강사가 되고,  
뒤편 하다 보면 수업이 되는  
거죠. 예전엔 재능기부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공유라고 말해요.





**조원1동 주민센터**

**수업 같지 않은 수업**

버스를 타고 일부러 먼 데서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생계에 도움되는 일도 아닌데' 하면서도 잔정이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누구나학습마을 강사 중에는 전문강사들도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수강료를 받지 않으니 신경 쓰는 일 없이 편하게 수업했는데, 학습자와 더 긴밀하게 아는 것을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산내읍도서관**

**뜨개질 가르치기**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고, 동네 언니가 동네 동생이나 옆 동네 친구를 가르치고, 어린이가 어른을 가르치고... 그런 모습이 조원1동에서는 흔한 풍경이 되었어요.



**마돈나돈가스**

**재미있는 목공 DIY 공예**

10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3명이 오거나 할 때는 힘이 들었어요. 마을에서는 생각한대로, 예상한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항상 어긋나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강사와 학습자들이 저의 속풀이 상대가 되어주었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정말로 너무 재미있어서 3년을 버틸 수 있었나 봐요.



**조원초등학교**

**누구나축제**

2015년 11월에 누구나학습마을 축제를 열었어요. 마을에서 흔히 열리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소소하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축제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기획회의를 9번이나 했어요.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험도 없던 우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뭔가를 얻어냈죠. 돌이켜보니까 대단했어요. 🍀

#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 화서1동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은 수원의 구도심 지역이다. 때문에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된 주민이 많고, 인구밀도에 비해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또 재래시장인 화서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10,249세대 27,8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등록외국인은 1,565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이다.



### 학습마을 네트워크

- 화서1동 주민센터
- 화서1동 주민자치위원회
- 새마을부녀회
- 새마을문고회
- 영광문고회
- 화서동성당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 수원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 푸른숲(아)문화공간추진위원회
- 화서신용협동조합

#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추진과정

## 2013 { 2013. 8 ~ 2014. 1 1차년도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28개 강좌, 37회 진행 / 주민강사 16명, 참여 392명 }

2013. 8. 19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2013. 8. 26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및  
협약식

2013. 9. 13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정기회의

2013. 9. 13 ~ 9. 14  
누구나학습마을 홍보  
@주민자치박람회  
(수원화성행궁광장)

2013. 10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협력기관 현판식

2013. 10. 10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정기회의

2013. 12. 27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2013 사진전  
@화서1동주민자치센터  
참여 150명

2013. 12. 27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 2014 { 2014. 3 ~ 2015. 1 2차년도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진행 49개 강좌, 102회 진행 / 주민강사 37명, 참여 1,407명 }

2014. 1. 9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정기회의

2014. 6. 27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2015 { 2015. 3 ~ 12 3차년도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40개 강좌, 86회 진행 / 주민강사 39명, 참여 1,413명 }

2015. 1. 26 - 28  
화서1동 청소년봉사캠프  
@주민자치센터

2015. 4. 9/5. 12  
화서1동 된장 담는날, 뜨는날  
@주민자치센터 옥상

2015. 12. 9  
오산시평생학습관  
학습코디네이터양성과정 수강생 방문



# 이웃에게 배우는 누구나학습마을

글 신은미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처음에 ‘누구나학습마을’이라고 하니까  
무슨 새로운 학습지가 나왔냐고 묻더군요.  
지난 3년은 마을에게 이 사업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화서1동의 특징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화서신용협동조합·  
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다문화도서관·영광문고회·새마을부녀회 등  
9개의 단체가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로 참여해, 협력기관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을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주민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강좌를 통해 마을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요.

그동안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습마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여는 마당>을 개최했고, 사업에  
공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의 여러 리더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아이 머리핀 만들기’ ‘스마트폰 폭넓게 사용하는 법’



수원다문화도서관지구별상상 2013/10/15



영광문고회 2013/10/15



푸른숲아파트 문화공간추진위원회



화서동성당 창조보전나눔터 마중물



새마을부녀회 2013/10/17



화서1동주민센터

‘전통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숙지고 댄스동아리와 ‘날 따라 해 봐’ 화서 신협과 ‘어린이 경제교실’ 화서사랑 무료 의료검진에 오신 어르신과 ‘실버 댄스’ 등... 여러 강좌를 통해 화서1동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분들은 화서1동 이웃입니다.

대부분 나는 가르쳐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다가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해 줄 수 있다는 분들이 강사로 나서 주십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쳐버린 지난 강좌를 다시 해 달라고도 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러저러한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나학습마을 강좌를 함께하며, 여기에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가 숨어 있기도 하고, 돈 주고도 못 배울 경험이 우리나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지런히 공부 해놓은 지식이나 재주를 이웃사람에게 배우며 좋은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 마중물

#### 봉숭아 꽃물들이기

마중물은 화서성당의 마을공간입니다. 지역축제 때 누구나학습마을에서 봉숭아 꽃물들이기를 했었는데 인기가 많아 재료가 금방 바닥이 난 거예요. 당황했었는데,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서 금방 재료를 날라오시더군요. 이게 마을 일이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요?



### 새마을문고

#### 아빠가 알려주는 PPT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 오전엔 문고가 비어있어요. 누구나학습마을을 위해서 그 오전 시간을 내주셨죠.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공공할 때는 ‘그날 우리 남편이 시간이 된대’ 라며 남편에게 컴퓨터를 돌려 보내는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아빠가 알려주는 PPT.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도 해주고, 인기가 짱이었어요.



### 화서신협

#### 스마트폰 차근차근 배우기

화서신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을 열기도 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었죠. 어르신들께 오늘은 한참 어린 이 친구들을 꼭 선생님이로 대접해주셔야 한다고 했지요. 대신에 어린 선생님들은 앞으로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큰소리로 인사하기로 하고요.



숙지고 댄스동아리  
날 따라해 봐

주민센터에 전면 거울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느 날 숙지고 댄스동아리 학생들이 여기서 춤 연습을 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연습공간을 빌려주는 대신 주민들에게 춤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죠!



새마을부녀회  
된장 뜨는 날

눈썹그리기로 인상이 달라지는 신비한 경험을 아세요? 고추장 만들기, 열무김치 담그기는 어땠고요. 요리, 뜨개모임, 인형만들기 같은 것은 강좌라기보다 주민들의 어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미없는 수다가 오가는데 그게 다 배움이 되고, 사는 데에 도움을 주거든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던 다문화도서관 같은 곳도 찾게 되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야간요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주민 대상 수업이 열리고 있잖아요. 누구나학습마을이 경쟁하려는 것은 아닌데,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 묘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우선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거나, 강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지요. 한번은 주민센터의 요가수업이 폐강될 위기에 있었는데, 누구나학습마을에서 야간요가 열린 강좌를 열면서 주민센터 수업을 홍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상생하는 법을 배웠어요.



화서1동 길  
비뚤비뚤 소박한, 마을의 길

3년 동안 멋모르고 화서1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냈어요. 비뚤비뚤하고 쾌적하지도 않죠. 3년을 지내면서 마을에선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구나, 알아가게 되었어요. 대단히 큰 길, 멋진 길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질퍽거리지 않고 유모차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소박한 길이 생기면 좋겠어요. 🍃



2부

# 함께 크는 마을과 사람들

누구나학습마을에는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가 있다. 2013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거쳐 각 마을에 파견한 소중한 분들이다. 누구나학습마을 1~3차년도(2013~2015년)는 이 세 명의 코디네이터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행정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을 연결시키고 엮어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도, 사람도, 공간도 변화를 경험하고 무럭무럭 성장했다.

- 60 **마을로 간 코디네이터** \_코디네이터 성장기  
8학년 언니들처럼 찼하고 징하게! \_류명화  
채원이 엄마에서 평가의 여왕으로 \_김지영  
마을에서 둥그레진 마음 \_신은미
- 76 **공간이 자란다!** \_협력기관 및 거점공간
- 84 **마을에서 크는 사람들** \_참여 주민 후기  
내가 만들어가는 누구나학습마을 \_윤태관  
누구나학습마을로 놀러오세요! \_배은주  
누구나학습마을에 귀를 기울이면 \_안연옥  
지난 3년을 돌아보며 \_김효임  
내 삶의 터닝포인트 \_김정연  
누구나 학습방 우리의 사랑방 \_최옥남



# 마을로 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성장기



※ 이 장의 글은,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세 분의 글과 인터뷰를 편집자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 8학년 언니들처럼 찐하고 징하게!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류명화

사람들은 내 첫인상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 버는 일보다 돈과 관계 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가족들의 걱정 어린 충고를 달고 살지요. 설렁설렁 마실 다니듯 즐겁게 마을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누구나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오지랖으로 마을 여기저기에서 일복이 터진 마을살이를 하고 있네요.

누구나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를 맡기 전에는, 마을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마을의

---

---

---

---

---

---

---

---

---

---

류명화 코디네이터는 마을 일에 대한 관심, 이해가 많고, 어떤 일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분명하다.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여럿이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동네 아줌마와 냉철하고 추진력 있는 조직의 보스 사이를 오가는 에너지이제!

---

---



이미지랄까요. 그리고 '마을에서 일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라는 예상과, 교육받은 마을 활동에 대한 이론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매탄4동에서 마을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의 오류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론과 실천이 얼마나 다른지를 마을에서 원 없이 겪어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같은 현장에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현장성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과 몸으로 부딪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요. 마을 일은 늘 어긋나기 마련이잖아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는 적용되는 것들이 마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거나, 빨리 해야 한다는 말은 마을에서 통하지 않지요. 미리 계획을 해도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든 큰 틀을 미리 짜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의 활동은 활동가나 기획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는, 며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견이 좀 없어졌달까요. 사람에 대한 편견도, 일에 대한 편견도요. 미리 예단하는 것이 일을 하거나 마을에서 관계를 만들 때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고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마을 일은 꼭 예상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깐요.

“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다니며 묻고 답하며 익히는 공부. 저는 코디네이터로 마을에서 일을 했지만, 지난 3년의 경험이 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지난 3년 간 마을에서 누구나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남은 날들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과거에는 큰 돈이 없어 함부로 도전해보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찾아 다니며 묻고 답하며 익히는 공부. 저는 코디네이터로 마을에서 일을 했지만, 지난 3년의 경험이 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평생학습이라는 전망을 찾게 되어 개인적으로 몹시 기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시도해 이루기도 했습니다. 바로 뜨개질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누구나학습마을에서 배운 뜨개질로 어느덧 멋진 목도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산드래미 8학년 언니들처럼 진하고 징하게, 매탄 4동 마을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

# 채원이 엄마에서 평가의 여왕으로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김지영

4년 전 마을에서 제 이름은 '채원이 엄마'였어요. 어느 날  
수원여성회를 만나 활동가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2013  
년 7월부터는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가 되었죠.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누구나학습마을의 모든 일이 낯설었어요.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을



김지영 코디네이터는 언제나 즐겁게  
사람을 잘 챙긴다. 긍정적인 관계의  
마술사다. 냉철함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잘 웃고, 잘 울고, 풍부한  
정서와 넘치는 인간미로 공약을 하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통해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 마을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  
계속 마주치게 되어있죠.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자리에  
단단한 딱지가 앉아서 결국에 저는 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죠. 저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의 기획,  
홍보, 주민들과의 관계 만들기 등 모든 일을 다 해냈던 지난 3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혼자서 홍보물부터 PPT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되기도 했고, 무언가를 기획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얼마큼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예전에는 상처 받기 싫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피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마을 활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군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 계속 마주치게  
되어있죠.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자리에 단단한 딱지가  
앉아서 결국에 저는 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왔다는 경험이, 저를 이만큼이나 변화시키더군요.

## 마을에서 등그레진 마음

요새 사람들이 저를 '평가의 여왕'이라고 불리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한다는 뜻이겠죠. 남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 꺼냈던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별명이에요. 물론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요. 밖에 나가면 당당하게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하곤 해요.

누구나학습마을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과 만나려면 이런저런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주민들만큼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저희 아이에게는 '공부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게 되었죠. 마을에서 주민들이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서 저도 몰랐던 부모로서의 제 모습이 많이 보이더군요. 아이의 공부에 과도한 신경을 쏟고 부모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었고요. 공부가 아닌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도 참 즐거웠어요. 강의도 재미있고, 아이들하고 무언가를 기획해서 하는 것도 즐겁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 주변사람들과 제 아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그려보고 있어요. 🏠

저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동시에 소소한 물건을 만들어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한번 쓰던 물건은 고장내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재주가 있고, 둔하고 무딘 면과 곱고 세심한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어울리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런 저의 모든 면이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에 때로 지치기도 하고, 좋은 이웃들과 즐거운 일을

신은미 코디네이터는 성실하고  
꾸준하며 기복이 없다. 드러내지  
않고 항상 뒤에서 열심인 사람이다.  
그냥 '맞아'라고 편히 가지 않고  
'왜?'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문제제기로 사업의 발전에 주요한  
힌트를 제공했다는 걸 그녀는 알까?



만드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면서요.

마을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해야 했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관계를 만들어야 했죠. 그렇게 3년을 활동하면서 부담스럽고 까칠하기도 했던 제 성격이 많이 무뎠어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면서 저도 모르게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한 편이에요. 계속 일을 했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람을 느끼면서도 적지만 경제적 보상도 있는 일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였죠. 그렇지만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을 활동에 건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온 마음을 다 던져서 집중하게 될지 저도 미처 몰랐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 이 활동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구나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예전에는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말을 꺼내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마을에서 저를 비롯해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속에서 삭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을에서의 관계는 직장처럼 그만둔다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들과 부딪쳐가며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기도 했었죠. 아마 어느 직장이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늘 조직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맡은 일만 고민했었죠. 누구나학습마을의 활동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달랐어요. 전체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늘 함께 도움을 주고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동시에 제가 마을 안에서 스스로 중심을 잘 잡아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로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이 많은 일을 해내다니! 하고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물론 그만큼 힘들기도 했지만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능력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지난 3년은 끝까지 스스로 해내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해내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시간이기도 했죠. 예전에는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말을 꺼내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마을에서 저를 비롯해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속에서 삭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난 3년을 보낸 누구나학습마을 모두의 성장이 아닐까요? 🍀

# 50번의 만남과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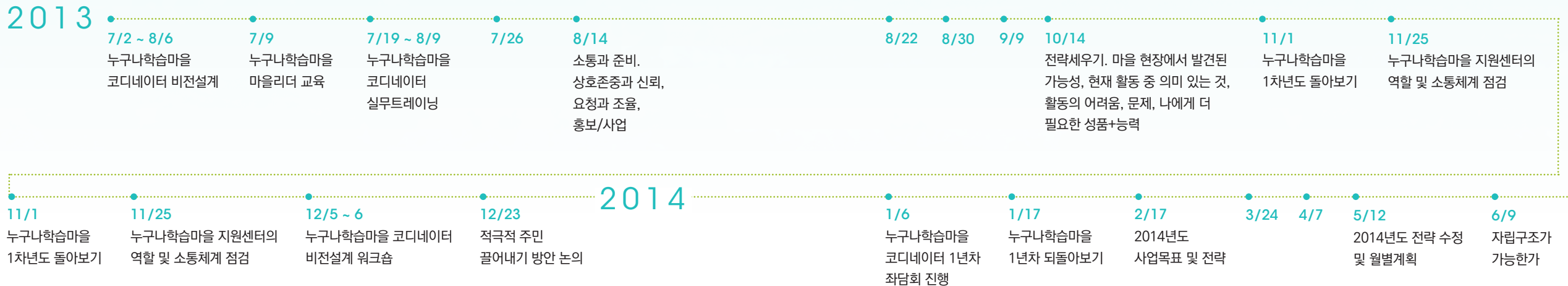
코디네이터  
간담회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에게는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즐겁고 성취감을 느끼는 뿌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종종 곤란에 처하기도 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종잡기 힘들 때도 있었고, 오늘 결정한 일이 내일 무산되거나 믿었던 이가 믿음을 저버리는 암담한 순간도 있었다.

‘마을 사람이 아닌 코디네이터’나 ‘한 번도 없었던 누구나학습마을’이나, 마을의 인정을 받고 마음을 얻는 것은 만만찮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관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 파트너가 되어야 할 행정에서도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주민센터의 강좌와는 뭐가 다른지 납득할 수 없다며 호의적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그런 의문을 떠안은 채로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라, 서로 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마을에는 생각보다 갈등의 뿌리가 깊고, 상처가 오랜 관계들로 얽혀 있었다. 반대로 마을에 대한,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선입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코디네이터 ‘혼자’ 마주하고 감당할 수만은 없었다.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조력자를 초빙하여 매월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3명의 코디네이터와 1명의 컨설턴트, 그리고 수원시평생학습관 담당자가 함께 한 간담회와 교육은 총 50회를 넘는다. 상호소통과 코칭의 과정에서 때로는 환하게 해법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미해결 과제로 남은 것들이 아직은 산적하다.



**코디네이터로서 누구나학습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 마을에서 새로운 나의 역할을 찾아보고 싶었다. 마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 사람 중심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설령설령 일해도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나 두려움은 무엇인가?**

- 3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고 있나?
-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 어디로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가?
-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한계
- 기존의 틀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
- 활동과 노동 사이의 혼란
- 행정의 일하는 방식에 매몰되는 것(과정보다 성과중심)

**나의 성장 점수는? 왜 그렇게 느끼나?**

- 마을에 들어가서 코디네이터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대단한 도전이었다. 여러 가지 편견이 깨졌다. 공무원이나 마을리더가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누구나학습마을을 하면서 달라졌다.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틀이, 순수하게 숨어있는 주민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깨어진 느낌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면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성장의 포인트였다. **류명화**
- 100% 성장했다. 희노애락을 다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 축제 기획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뒤로 뺄 줄 알았다. 그런데 9차례 회의에 14명의 기획팀 식구들이 열성을 다했고, 회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데... 마음이 벅찼다. 몰라주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알아주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지영**
- 스스로에게 인색한 편이라 나의 성장점수는 80점대다. 다른 활동들과 조화하면서 중간에서 학습마을이 최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마을이 아니었으면 벌써 그만두었을 것이다. 마을은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도 주민들이 이웃과 만나게 하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 **신은미**

2015

6/23	8/28	9/29	10/13	11/03	11/24	1/12	2/2	2/16	2/24	3/16	3/30	4/13	4/27	5/11
코디네이터 교육 내용 재검토	벤처마킹 사례 공유	주민센터의 역할론 논의	누구나학습마을 1차년도 돌아보기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기존 리더와의 관계설정		2015년 핵심과제 논의	3차년도 추진전략 수립	관계자 공유회 / 월별 추진 목표 점검 및 마을 현황 공유		월별 목표점검 및 마을현황 공유		3차년도 핵심과제 논의		

2013년 7월 2일부터 2015년 12월 7일까지 꼬박 2년 반 동안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와 만나며 사업은 물론, 코디들의 성장을 이끈 사람이 있다. 조직화교육 전문가인 김미영 한국감마센터 대표이다. 자활에서 사회적 기업까지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누구나학습마을과 함께 해온 김미영 컨설턴트에게 지난 50번의 만남과 배움에 대해 질문했다.

**코디네이터를 선정할 당시 중요하게 생각 한 부분은?**

- 열정, 열망, 도전하는 마음
- 스스로의 관점과 개념이 서있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느슨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

**50번의 교육과 간담회는 코디네이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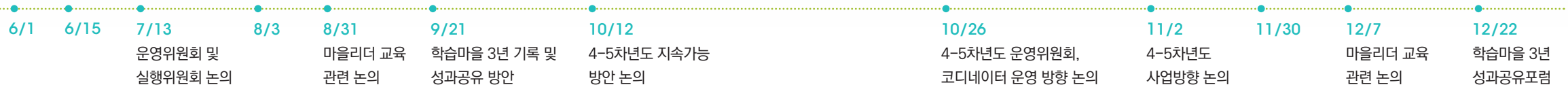
□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는 건 혼자다. 동료들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월 2회의 간담회였다. 수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워낙 지혜롭게 노력했고 학습관도 급하게 이끌거나 압력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코디네이터들에게 실망하는 순간은 없었나?**

□ 답답하고 힘 빠지는 순간도 있었다. 해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미리 판단하고 조건들을 생각할 땐 답답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로서 해야 하는 일과 주민처럼 편하게 할 일 사이에 균형을 가져야 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개인의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누구나학습마을은 괜찮은 일인가?**

- 누군가의 말처럼 특정 직군의 일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방향을 만들어 가는 일이었다. 흐름과 체계를 밟아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제시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한마디로 계획하고 예측하기 힘든 사업,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나 계획서를 내놓기 힘든 사업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은 진정으로 창조적인 일이었다. 이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다.
- 이런 조건과 환경 안에서 에너지와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업이라 각 마을 코디네이터의 성격과 특색에 맞게 누구나학습마을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을의 조건, 코디네이터의 성격과 장점이 만나 만들어진 것이다. 세 분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의 성장과 함께 나도 같이 성장했다.



2016

# 공간이 자란다!

협력기관 및 거점 공간



## 매 단 4 동



### ☞ 커빈커피

인테리어가 멋진 카페공간에서 주제가 있는 모임과 수다가 이루어지고, 누구나학습마을의 홍보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의 강의를 있는 주민들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 ☞ 산드래미 옷말 느티나무

느티나무 나무그늘!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공간에서 전래놀이와 봉숭아 물들이기, 작은 강좌, 작은 음악회 등이 열려 주민들의 쉼과 학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무모함으로 나무가 병들어 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

### ☞ 아랫말경로당

누구나학습마을 그림그리기와 노래교실이 진행되면서, 마을 어르신들만의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찾아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8학년 언니들'의 동아리 전용 문화 공간으로도 변신 중이다.

### ☞ 선가보쌈

단체손님들이 이용하는 3층 식당 공간이 웃음치료, 송편 만들기 등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학습과 행사를 진행하는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변했다.

### ☞ 응달샘어린이공원

낮에는 할머니들,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동네 가운데 위치하지만 관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공원이었다. 봉숭아 물들이기, 풍선아트 등의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 산샘어린이공원

담배 피우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가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어린이공원이었다. 재기 만들기, 이니셜 팔찌 만들기, 타로 카드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동네 가운데 자리한 어린이공원다운 밝은 모습으로 거듭났다.

#### 매탄4동주민센터

서류를 떼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배우러 가던 공간에서, 주민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일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의 변화. 주민들이 수시로, 마음대로 드나드는 주민센터가 되고 있다. 조금씩, 천천히!

## 조원1동



#### 산내읍도서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사설도서관이었지만,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양한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 휴카페

낮에는 커피, 저녁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마을 카페다. 낮 시간에 누구나학습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었다.

### ☑ 행복나눔 녹색가게

새마을부녀회가 마을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는 데 사용한다. 누구나학습마을의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며 공간을 주민들에게 열었다.



### ☑ 드림지역아동센터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습과 문화체험 및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곳으로, 프로그램에는 주로 외부강사들이 많았다.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센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재능기부로 강사가 되기도 했다.

### ☑ 마돈나 돈가스

누구나학습마을 초창기에 거점공간을 고민할 때,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간을 활용하였다.

### ☑ 새마을문고

북카페로 리모델링 후 누구나학습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책 읽는 주민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지금은 공간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 화서1동

### ☑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었던 부녀회 주방이, 화서1동 주부를 위한 요리교실이 열리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 ☑ 화서1동 주민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누구나학습마을과 함께 한다.

### ☑ 창조보전 나눔터 마중물

아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마중물처럼,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고자 하는 화서동성당의 교우들이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과 함께 활동한다.

### ☑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 결혼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과 아이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 화서신용협동조합

한 명의 부자보다 백 명이 잘 사는 동네를 키우고자 하는 금융공동체 실험의 교육공간을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조합원 이외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화서1동 새마을문고와 영광 새마을문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대여사업을 주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끌어가는 공간. 오후 2시 이후에 이용 가능했던 공간이 누구나학습마을과 협력하며 오전 시간 다양한 학습모임의 장소가 된다.



# 마을에서 크는 사람들

참여 주민 후기



## 내가 만들어가는 누구나학습마을

글 동동이(윤태관)(매탄4동)

‘마을’은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은 끊어졌거나 애초에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활동’은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주민조직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며,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처럼 활동기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르네상스처럼 외부의 지원과 자극을 받아 시작되기도 합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마을활동이니, 외부의 지원과 자극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르네상스와 같은 공모사업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모사업이 마을활동에 필요한 사업의 실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마을르네상스는 그러한



활동을 해나가는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엮어나갈 '코디네이터' 선정과 교육,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강좌'를 매개로 능력 있는 주민 강사를 찾아내고 발휘되지 못한  
 개인의 특기를 부추겨서 강사로 세워 나가는 방식입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마을 강사를 확대하고 마을 활동가를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해 배움의  
 욕구를 채우는 동시에 참여와 인간적 만남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의 강좌를 통해 주민강사와 주민 학생이 만나고,  
 주민 학생과 주민 학생이 만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탄4동에서는 지난 3년 간 누구나학습마을을 운영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의 단체장이나 단체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 그리고 민원 때문에 방문했던 주민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재능을 가진 분들을 찾아내었고, 크고 작은 강의를  
 열면서 강사와 수강생을 늘려왔습니다. 재능과 열정 있는 통장님과  
 함께 한 '8학년 미술'이 그랬고, 최장수 강의가 된 '냅킨 아트'가  
 그랬습니다. '오이지 만들기'를 대박 내면서 반찬가게를 해볼까  
 하는 말도 나왔고, 동네에 작은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해보게 되어서 너무 좋아' 삶의  
 재미와 활력소가 된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하던 말씀들이 어찌면  
 번지르르한 걸보기도 실적보다도 더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의 앞은 아직도 알 수가 없으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코디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주민강사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의 힘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  
 힘으로 내가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16년  
 누구나학습마을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 누구나학습마을로 놀러오세요!

글 배은주 (매탄4동)

2014년 처음 아이 때문에 동사무소 문을 두드렸을 때는 누구나학습마을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막내 딸아이의 발레 수업을 등록하고 한 시간쯤 기다리는 동안 어떤 분이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누구나학습마을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매탄동에서 오래 살았지만 적잖이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누구나 학습할 수 있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곳... 무료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강좌가 있다는 것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누구나학습마을에서 배웠던 것은 리본으로 머리핀 만들기였는데, 아이에게 같이 발레를 시키는 어머니가 강사였습니다. 아이가 수업 받는 수요일에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어 냅킨아트를 배우고, 시간이 흘러 강사도 되고,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무료수강도 해주고, 빠르게 1년이 지나고 지금은 새롭게 뜨개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사람을 새롭게 사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배우는 입장에서는 말도 금방 나누게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감과 소통, 만들어서 선물하는 즐거움,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느껴지는 행복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아졌구요.

누구의 엄마로 살아오는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 누구나학습마을에 참여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1년여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자존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겼으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던 것은 당연하겠죠?

혹 무료체험이라 강사도 수강생도 너무 안일하게 지켜지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단점으로 남아 있지만, 차츰 이런 점도 보완된다면 더 좋은 학습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누구나학습마을로 매탄4동 주민 여러분들도 놀러 오세요! 📍

# 누구나학습마을에 귀를 기울이면

글 안연옥 (조원1동)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일상을 함께 하는 평범한 주부랍니다. 그러던 저의 일상은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어느덧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조원주공아파트 내 산내음문고와의 인연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의 등교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고봉사를 시작했지요. 그 시간만큼은 저만이 갖는 나름의 독서시간이었어요.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인상 좋으신 방문객의 예정에 없던 누구나학습마을 설명!

‘어…!! 이건 뭐지?’

‘뭐… 그닥… 나랑 상관없으니까…’

상대방의 성의 있는 설명도 제 귀가 닫히니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김지영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대하면서, 처음에는 관심없던 제가 어느덧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군요~!!

“어… 그거 예전에 가사시간에 했던 것인데…”

그렇게 공감대를 만들며 시작된 인연은 뜨개질을 시작으로, 양말공예, pop, 퀼트, 리본공예, 바리스타 등으로 확장되었답니다. 보고 있으면 다들 능력이 짱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성의있는 강의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저는 어느덧 누구나학습마을에 제일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거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걸. 선생님들의 열정에 부러워만 하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이 되려고 저도 노력 중이거든요. 그리고 외쳐요. 파이팅~!! 🍀

#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글 김호임 (조원1동)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를 발견하는 촛불이었다.

소통과 나눔.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나눌 것인가?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우리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멀리 있는 누군가와, 또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너머의 누군가와 소통하길 바란다. 하지만 소통과 나눔은 바로 우리 마을 우리 이웃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누구나학습마을이 조원동에 온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조원동에 살고는 있었지만 가까운 우리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관심조차 없었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해 본 적이 없었다. 문화센터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데 익숙했던 것이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인간관계를 했고, 마을 사람들을 알려고 하고 마을 일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이 우리마을에 온 후 다양한 강좌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학습마을은 그냥 강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배움의 의미로 기록되었지만 그 작은 배움이 만남이 되어 그 만남은 우리가 속한 마을을 둘러보게 했다. 마을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고 너희들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조원1동 단체가 되었고, 그렇게 조원1동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결속력이 조금씩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 맘대로 뜨개질’ ‘양말 인형 만들기’ ‘중학생 누나랑 함께 하는 영어동화책 ‘퀵트’ ‘리본핀 만들기’ ‘스포츠댄스’ ‘만원의 행복 꽃꽂이’ ‘페이스페인팅’ ‘도전 예쁜 글씨 POP’ ‘핸드 드립으로 커피 마시기’ ‘매듭팔찌 만들기’ ‘숙성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강의들이 열렸다. 각각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로 매번 다른 강의들이 열리게 되었지만 사람은 모두 조원1동 주민이었고, 같은 취미로 지역에서 뭉치게 되었고 모임도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모임들은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배움의 열정에서 마을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마을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녹색가게는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직도 쓸만한 물건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재활용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했고, 부녀회에서는 마을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김치와 반찬을 나누는 등 가정에서 엄마가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듯이 취약계층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 조원동 마을 만들기로는 '사회적기업 마돈나 돈가스'와 조원에 '정주마'라는 단체가 있어 마을에 활력을 더했고, '드림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나 조손 가정, 한 부모가정 아이들에게 돌봄의 장소로 묵묵히 지역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지역에 이런 착한 모임이 있다는 것,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열어주는 강사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마을 만들기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또 조원동을 중심으로 한 각 단체들은 지역에 홍보가 필요했고, 쓰다 버리는 물건이라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둘러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작게 배움의 열정으로 시작한 모임들은 나도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무엇이든 지역에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모임 속에서 조금씩 알게 되어가는 소식들이 우리를 조원동이라는 마을에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재능기부로 탁구강의가 열린다고 해서 탁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누구나학습마을 강의에 참여했고, 뜨개질 강사로 활동했으며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조원동이 앞으로 더욱 살맛 나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



# 내 삶의 터닝포인트

글 김정연 (화서1동)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 제가 2011년 12월에 급작스럽게 위암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접고 수원 화서1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사 와서 낯설고 무료한 마음에 무조건 화서1동 주민센터로 와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쿨트를 수강하던 중에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추장 담그기' '오이장아찌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눈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간이 마땅치 않아 못하고 있다가 '스마트폰 완전정복'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얼핏 간판을 보긴 하였지만 별 관심 없이 지나쳤던 다문화도서관에서 강좌가 열려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서관 치고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수업을 받아보니 편안하게 느껴졌고,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을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도 유익했고... 수업을 통해 다문화도서관을 접해 보니, 예전 우리도 간호사나 광부로 독일에 가서 고생했던 것처럼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문화도서관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1월에는 누구나학습마을에서 뜨개질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자랑할 만한 솜씨는 아니지만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강생으로 참여해서 핸드워머를 같이 만들어 보자 했는데 누구나학습마을 코디 선생님의 요청으로 '목도리 뜨기만큼 쉬운 핸드워머'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대비늘을 손에 잡아보니 쉽게 자신이 생기지 않아서, 화서시장 뜨개방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핸드워머도 먼저 만들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먼저 만들어 본 핸드워머를 보고 다들 잘 했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코 잡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같이하는 수강생들이 재미있게 잘 따라와 주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솜씨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

# 누구나 학습방 우리의 사랑방

글 최옥남 (화서1동)

여자 아이가 둘이 있는 저희 집에는 온갖 머리끈과 머리띠가 가득합니다. 가끔은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금방 떨어져버려서 못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참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본을 구입해서 만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니,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특히 딸을 둔 엄마들에게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첫 강의! 재료 준비하는 과정도 신경 쓰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강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한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정말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는 얼굴도 몇 분 보여서 긴장이 덜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셨지만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만들다 보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다 보니 강의라는 느낌보다 내 친구에게, 내 동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편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한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수업이 수강생들의 열정으로 한번 더



기획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보다 더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수강생까지 생기게 되어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의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마침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라 '트리와 눈사람 만들기'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느질이 처음이거나 서투신 분들이었지만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다들 뿌듯해 하시는 얼굴을 보니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와 딸이 함께 수강하신 분이 계셨는데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 것 아닌 재주로 이웃에게 다가가다 보니 여기가 바로 '사랑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남들보다 잘 하는 것,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강의자가 되고 강의자가 수강생이 되는 누구나학습마을은 이웃의 사랑방이자 힐링의 교실인 것 같습니다. 📖

3부

# 다시, 누구나학습마을을 시작하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누구나학습마을은 2015년 시즌1을 마무리한다. 누구나학습마을 3년, 사업의 추진과정과 여러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누구나학습마을을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그 의미와 과제를 더듬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마을 단위 사업들이 흔히 갖게 되는 자족적인 평가를 넘어서, 누구나학습마을이 영향력을 갖고 좀 더 신나게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는 물론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가진 선배, 선생님에게 우정 어린 조언을 얻고 남은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102 **누구나학습마을의 혈거움과 촘촘함** \_임재춘  
밖에서 본 누구나학습마을

110 **주민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마을** \_김미영  
누구나학습마을 3년, 성과와 과제

116 **다시 보고 미래 찾기**  
누구나학습마을 성과공유포럼

# 누구나학습마을의 힐거움과 촘촘함

밖에서 본 누구나 학습마을

글 임재춘 (커뮤니티 스튜디오104 공동운영자)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습마을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면서 참다운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담고 있는 사업이다. 뭔가를 가진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호의가 거래되면서 남겨지는 것이 '새로운 관계'라는 점은 누구나학습마을의 가장 큰 매력이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가르치고 배우다'라는 행위가 가진 근대성을 뛰어 넘어 한 개인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장치로 작동되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적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닌 '누구나' 나름의 경험에서 축적된 삶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도 엿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배움의 관계가 형성되는 동네, 마을로 이어져 말 그대로 커뮤니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되고, 나와 그들의 일상이나 삶이 교차되는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며 때로는 동네의 누군가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단했던 요즘을 풀어내며 마음을 달래거나 하는 일들 말이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리 가지 않고도(동네에서), 게다가 돈을 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의 느슨한 구조가 만들어 내는 힐링함의 틈들은 주민들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학습마을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다만 각자의 필요나 동기가 학습되지 않고 선순환 되지 않을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학습마을이 힐거움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이유가 된다. 힐링한 틈들이 촘촘해지고 틈의 결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진다.



### 공간의 변신 프로젝트

배움의 장소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동네 어느 지점 곳곳에 있다는 점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배움이라는 행위의 정서적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화서1동의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화서신협외 조합원을 위한 교육장, 화서성당의 문화공간인 마중물, 다문화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주민자치센터 외의 동네 안에 있는 공공 성격의 장소들이 교육장소로 내어지면서 배움의 인프라를 보다 촘촘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거나 용무가 있을 때 들르던 목적성 장소였을 그곳들이 뭔가를 배우는 의외의 경험으로 주민들에게 각 공간들이 새롭게 의미 지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나학습마을과의 네트워킹이 각 공간들이 주민들의 활동을 지지, 지원하는 방향과 틀로서 다시 정의되거나 확인되는 경험이 되었을 거란 예상도 해본다. 동네가 가진 자원과 환경에 따라 특징적인 누구나학습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기획의 방향이나 전략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동네의 자원을 조사하고 구조화하여 효과적으로 각 동네에 맞는 유무형의 인프라 좌표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래야 장소나 공간, 사람, 기억, 이슈와 같은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전파되는 기획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사람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공유가 개념적으로나 지역사회 등지에서 실천된 사례로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굳이 새로워야 할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들이 여전히, 더욱더 많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누구나 학습마을의 등장과 시도는 사람다운 삶이 누려지는 터전으로서 동네를 읽고 비평하는 인문적 과정의 일환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이나 고민들이 참여했던 몇몇 개인의 것으로 머물러 있다거나 흘리지 않고 아주 충분히 이야기되고 기록될 수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 코디네이터, 득과 득 사이

누구나 학습마을에서 동네별 코디네이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동네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섭외하기도 하며 교육장소로 내어질 곳을 찾아 네트워킹도 제안했다. 주민자치센터의 한 칸을 사무공간으로 쓰면서 행정과 수원시평생학습관과 같은 동네 안팎의

중간지원기구, 주민 현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한 이들의 열정과 발품이 없었다면 아마도 3년의 이야기가 보잘 것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고민이 깊어 보인다. 누구나학습마을이 주민들보다 코디네이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국 때문이다. 코디네이터의 주도성이 컸던 점이 분명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누구나학습마을의 험거운 구조를 들 수 있다. 배움의 행위들이 고리처럼 연결되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배움의 동기,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좋다, 필요하다 외에 구체적으로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때 적극적 참여의 열정을 북돋울 수 있다. 경험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다시 나뉘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규칙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배움의 시간 외에 누구나 학습마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며 누구나학습마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적절한 것이라면 누구나 학습마을의 기본 구조를 보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주민성을 획득하기

지난 3년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나학습마을이 가능한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동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배움의 주체성이 하나임을 경험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고 본다. 한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주가 다른

이들에게 전이되면서 기존의 경험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의미 지어지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한 사람의 사건들이 쌓이면서 말 그대로 '주민'이 되어가는 가능성들이 입혀진다. 공공영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동원되고 소비되는 주민과 주민참여라는 개념들이 커뮤니티 아트,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 영역에서 주민이 주민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문제시할 때 주민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3동의 누구나 학습마을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을 걷어 올렸다. 화서1동에서, 매탄4동에서, 조원동1에서 사는 사람들의 존재들을 드러나게 했다.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아차리게 하는 일이야말로 어찌면 지난 3년 활동의 가장 큰 성과이지 않았을까.



물론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고 누구나 학습마을의 가치들을 보편적인 누군가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무척 힘에 부치는 일이다. 경쟁과 자본의 토대로서 성공과 1등이 존엄한 가치로 숭배되고 있는데 가치관으로서의 정치적 태도와 각자의 내면들을 허물지 못한다면 배움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리고 어떤 삶이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의미는 뒤로 한 채 판에 박힌 일상이 되면서 조만간 자기 동력을 잃고 만다. 요가, 열무김치 담그기, 해외직구방법, 뜨개인형 만들기, 부엌이 키홀더 켈트, 스마트폰 배우기, 유용한 생활자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누구와 누가 만나서 했다면 그치면 곤란한 이유이다. 분명 있었을,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이를 떼면, 사담으로 만든 우리 동네 역사, ○○○할머니의 자서전, 기억지도, 인생지도 같은 방식으로 재미나게 기록되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남이 관계로 전환되는 데에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생각, 인생, 고민, 경험 등이 재능을 매개로 교류되고 공유되는 보충적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은지. 현장의 하나로 들렸던 화서1동의 화서신협이 경우 교육거점으로서의 그것 외에 처음에 신협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당시 가난한 동네 상인들의 동네 은행이 되어 주었던 이야기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동네를 다녀온 후에도 화서1동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 누가 마을의 제안자가 될 것인가

누군가 세계 모터 끈을 잡아당겨 배를 움직이게 했다면 이후에는 모터가 회전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유지하며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년의 시간을 비추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배움의 동기나 이유가 자기 삶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배움의 주체로 역할 지어지는 것 이상 즉, 주민으로 학습된 주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학습마을의 향후 방향성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학습마을이 지난한 3년 살이를 해오면서 겪은 미담 외에도 부끄러운 이야기,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구나 학습마을이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캐주얼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때로는 지루하고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을 듯하다.

덧붙이자면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배움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영상과 각종 책들이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가치들이,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누가 마을의 제안자가 될 것인지, 주민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누구나학습마을이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

# 주민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마을

누구나 학습마을 3년, 성과와 과제

글 김미영 (누구나학습마을 컨설턴트, 감마센터 대표)



마을의 변화는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마을의 변화는 곧 사람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습의 가장 큰 결과물은 기분 좋은 가능성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일 것이다. 학습을 통해 마을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길 기대하며 시작한 누구나학습마을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을 돌아본다. 먼저 코디네이터 3명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없이 사업을 운영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마을과 주민들은 변화무쌍하다. 마을 안에서 경험한 코디네이터의 희노애락이 지금의 누구나학습마을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열정을 다해 함께 해 오신 코디네이터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누구나학습마을을 기획하고 지원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 성과

### 1. 마을 특성별 누구나학습마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을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찾고 실천하였다. 마을마다 역사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다. 마을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시키고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발견하여 누구나학습마을을 풍성하게 하였다. 마을 곳곳이 학습의 장으로 발견되고 활용되었다.



**2. 주민들이 서로서로 배운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행되었다**

배운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선생과 학생의 신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누구나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마을에서 값없이 배움을 나누는 경험은, 나눔이 살아나는 마을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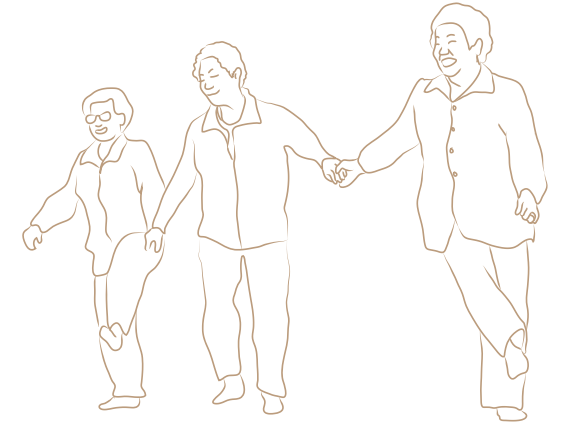


**3.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학습의 주제들이 살아났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지식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문적이거나 고급스러운 기술이나 지식이 배움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고추장을 담그는 것, 핸드폰을 다루는 것, 멋진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등 소소한 일상의 주제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든다. 삶과 연결된 배움,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이 살아있는 배움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은 경험에서 체득된 것들의 소중함을 주민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누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4. 학습이 배우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사귀는 장이 되었다**

같은 또래의 엄마들끼리, 선후배 아줌마들끼리, 아이들과 아빠가, 청소년들과 어르신 등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에서 함께 만나 배우고 소통하고 사귀는 장이 되었다. 만남을 통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였다. 누구나학습마을 성공의 열쇠는 주민간의 소통과 만남을 통한 관계형성에 있다.



**5. 누구나학습마을이 지속가능하도록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할 주민리더들이 발굴되었다**

지속적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발굴된 주민들과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경험하고 만난 주민들을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을 수행하였다. 주민 리더들의 발굴과 확대를 통해 누구나학습마을의 지속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 앞으로의 과제

### 1. 마을별 누구나학습마을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필요하다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은 다양한 마을 일을 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 리더그룹들이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새롭게 마을에서 찾은 주민들을 모으고 세워 학습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우고 장기적인 과제로 학습마을을 주도할 조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2. 가르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마을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습의 많은 경우가 취미나 교양, 일상적인 필요에 관련된 것이 많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교육의 주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마을에서 발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앞으로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꼭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학습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일), 환경, 생활정치 등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학습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도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 3. 소외된 주민들과 학습을 통해 만난다

마을 안에 소외된 주민들이 많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존재이며 학습으로부터도 소외된 존재이다. 마을단위에서 그들이 고립되지 않고 마을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학습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민에게 가서 주민에게 배우라.

주민과 함께 살고, 주민을 사랑하라.

주민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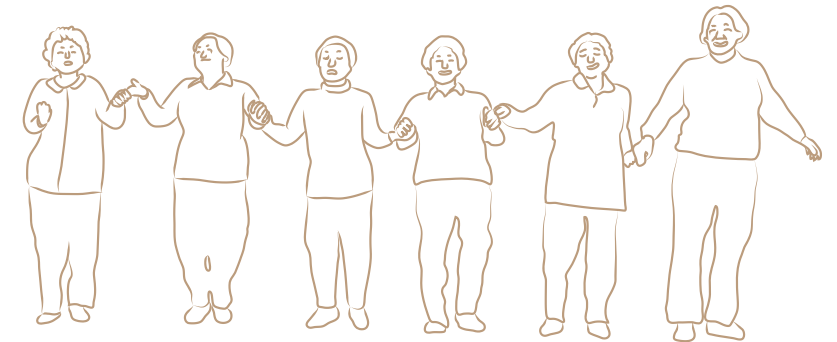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는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고

주민 스스로에게 말하게 할 수 있는 자일지니...

노자



# 다시 보고 미래 찾기

누구나학습마을 성과공유포럼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참가자

김지영(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 류명화(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 신은미(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  
강원제(OO은대학연구소장) / 김성연(희망생도서관장) / 김탕(문화예술기획자) / 임재훈(전 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장, 스튜디오 104) /  
김미영(누구나학습마을 컨설턴트, 감마센터 대표) /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장) / 박은미(수원시평생학습관) / 백현주(수원시평생학습관)

**백현주** 지금부터 누구나학습마을  
성과공유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이 행하는 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만큼 많이 울고 많이 웃고 했던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를 펼친다는 것은 학습관 안에서 안정되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고,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힘든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스토리가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3년이 되었으니 의미나 성과뿐  
아니라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을 밖, 수원 밖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사한 활동 경험을 해오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분들이 느낀 누구나학습마을에  
대해 들어보고, 또 여기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학습관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의견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을별로 주민들과  
한차례씩 성과공유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서는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은 비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있었던 성과공유회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략)… 각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보충할 이야기가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 일을 넘겨주기

**신은미** 화서1동은 마을의 주축이 됐던 기관들과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마을 전체의 주민대상  
프로그램들을 엮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각  
프로그램들의 중심이 주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관들과 함께 한 경험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이 조금 무거운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거지요.

**류명화** 우리 동네는 과거 4개 성씨의  
집성촌이었고, 지금도 몇 대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동네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이 큼니다. 저는 그런 것 없이  
누구나학습마을이 어떻게 모두에게 녹아날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시니까 거기에 집중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경로당 할머니들의 활동으로 마을이 좀 더

새롭게 모이고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은미 선생님처럼 제 고민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일 때는 마을 활동을 하고 코디네이터 일이 끝났다고 마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을의 리더이면서 코디네이터이면서 주민으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코디네이터가 아닌 마을의 리더이자 주민으로서 어떻게 누구나학습마을이 잘 되게끔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김지영** 저희는 아마 다른 마을보다 걱정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주민센터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돈까스 집이었거든요.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대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마을에 비슷한 거점공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서 수업했던 분들이 저기 가서 수업하고... 지금은 마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수업이, 수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번만 강의를 하겠다던 분들이 주민강사로 1년, 2년 계속 활동을 하고, 주민 리더가 돼서 코디네이터 일을 하겠다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 많아서 넘겨주고 오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백현주**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하나 같이

“누구나학습마을의 제안자가 주민이 된다면, 그것은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경험해보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죠. 그런 열망과 욕구가 충분한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없이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해요.”

이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질문도 많고 자신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자기검열이 상당하신 분들이예요. 그런 태도가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과제들을 조금 뒤에 놓고요, 바쁜 시간 내서 화서1동, 매탄4동, 조원 1동을 같이 돌아봐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춘 선생님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장이셨고요, 지금은 수원 서둔동에서 스튜디오 104라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성연 선생님은 YMCA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금은 고색동 희망샘 도서관장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OO은대학연구소장’ 강원제 선생님,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푹푹도서관의 기획도 처음 같이 하셨던 김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 동네 이야기의 기록과 공유

**임재춘** 3년이라는 시간이 막연해서 가늠이 안 되지만 노고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들 속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순간순간 성실하게 임했던 과정들을 들으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어요. 그런 점에서 누구나학습마을이 대단히 새로운 시도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익숙한 경계를 허물려는 인식이나 노력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학습마을이 상당히 유의미했고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동네에서 드러나고 기록되고 공유되면서 인문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학습마을의 성과를 봤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이, 공간의 어떤 심리적 경계,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학습으로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를테면 화서신협은 금융기관 이상의 마을기관으로 의미가 새롭게 생겼던 거죠.

누구나학습마을의 제안자가 주민이 된다면, 그것은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경험해보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죠. 그런 열망과 욕구가 충분한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없이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해요. 요새는 동영상도 있잖아요. 이런 제안자들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연** 저는 YMCA에서 교육운동을 해왔던 입장에서, 누구나학교라는 이름에서 새로운 교육 형태의 신선함과 가능성을 예상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펼치고 있던 YMCA의 활동들은 어떻게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서1동은 행정의 의지나 다양한 마을 리더들 그리고 마을문고와 같은 거점들이 장점인 반면 또 약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서시장이라는 오래된 상권과 성당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도요. 오래된 세계에서는 새롭고 낯선 것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코디네이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 얼마나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과공유회에 오셨던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신은미 선생님,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봐서 나왔다." 코디네이터가 화서1동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발견하며 보냈던 3년이 전해지더군요. 내가 이 사람을 봐서라도 같이 해주어야지, 하는 마음을 끌어내기까지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맥주 만들기' '전통주 만들기' '아빠가 알려주는 PPT' 처럼 주부나 아이들이 아닌 아빠,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좋은 전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활동가들 혼자서 분투하는 현상이 많잖아요. 저 추진력과 마음은 도대체 뭘까? 지역과 단체에서 한 몫을 하면서 보낸 긴 세월을 통해 그 역량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지만 코디네이터와 마을 주민은 다르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초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훈련이나 교육으로 키워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울러 아름다운 모습들 이면의 재능 나눔과 열정 페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평생학습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소비의 현상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이나 교육으로 명명되기 이전부터 배움과 나눔의 자리는 늘 있어왔어요. 옆집에 미용기술을 가진 아줌마한테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허브가 되어버려서 거기로 학습자원과 정보가 다 링크되고 있잖아요. 그 책임감도 만만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한다든가, 대체의학이라든가... 그렇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배움과 나눔'은 어떤 선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를 저는 늘 고민 중입니다.

#### 너무 잘 하지 않는 지혜

**강원제** OO은대학에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처럼 활동하는 청년들을 술래라고 부릅니다. 이 술래들이 그냥 훈련 안 된 채로 마을에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잘 못해요. 그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서 잘 하는 술래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잘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잘 하면 다음 일을 누가 받아서 하겠냐?'라고 해요. 반대로 못하는 친구들은 '네가 못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너보단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잘했다'고 말해주죠.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허브가 되어버려서 거기로 학습자원과 정보가 다 링크되고 있잖아요. 그 책임감도 만만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센터나 구청과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청년들 평생 보장할 거 아니면 관계성으로 일시키지 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관계를 연결하면 안된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코디네이터가 마음도 편하고 실수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이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멤버들이 꼭 마을의 리더로서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운영이

아니라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주는 ‘연구회’ 같은 이름이 어떨까요. 이름을 잘 짓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학습자원화 전략은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풀고 마을의 공간들을 자원으로 만들기까지 한다면 정치 과정이 되어버리니까요. 학습 자원화 전략은 선생님들이 하는 일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두되, 이 둘을 어떻게 분리시키고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김탕** 코디네이터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 분들을 중심으로 뭔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험을 감지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가능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례되는 질문이었지만 신은미 선생님께 ‘어느 정도 받고 일하십니까?’ 라고 여쭙았던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받고 그만큼 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사는 모습은 오히려 마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는 게 좋아요.

또 코디네이터가 교육 내용을 발굴하거나 교육자를 먼저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를 자꾸 끄집어 내주거나 동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코디네이터여야 하는 거죠.

저는 마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합집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 수 있는 마을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 좋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의 경제적

“마을 일은 절대로 상상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낯선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충격과 공포죠. 그 상황에 대해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힘으로 버텨왔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면서 저는 마음이 좀 쩡했어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래서 선택보다는 강제되는 게 마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모였다고 하면 진짜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져요. 분명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마을에 정주성을 가져야 하고 가꿔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이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지역 안에 꽤 많을텐데, 그들에게도 마을에서의 자기 역할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성비의 불균형 문제도 겹치죠. 마을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남성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탄4동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나의 예술을 왜 무료로 풀어야 하는가?’ 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마을에 살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일을 누가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나누면 좋겠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 분도 똑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 같아요.

**정성원** 지금 세 분의 코디네이터가 계시는데 그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잔뜩 긴장해서 생기는 심리적 근육통이 생기셨을 것 같고, 다른 고민 때문에 일종의 정신적인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김미영 선생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본 학습마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 성과를 넘어선다는 것

**김미영**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처음에 같이 개념을 잡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 1년만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3년이 흘렀네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좀 달랐을 것 같고, 또 좀 더 전문적인 지지와 개입이 있었다면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마을 일은 절대로 상상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낯선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충격과 공포죠. 그 상황에 대해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힘으로 버텨왔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면서 저는 마음이 좀 쩡했어요. 재미있고 즐겁게만 하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만은 되지 않죠.

그리고 프로젝트니까, 어쨌든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고민해야 했죠. 많은 성과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로가, 스스로에게 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는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해요. 프로젝트 안에서 성과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무엇을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성과를 넘어서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3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백현주** 오히려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을 걸요. 가슴이 찡한 것만큼 관계도 만들어졌고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 때문이든 프로젝트가 가진 한계든 코디 선생님들 중심으로 관계가 엮여있다는 것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OO은대학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강원제** 우리는 '일을 혼자 하고, 혼자 성과를 내려고 하는 순간 너는 거기서 평생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OO은대학'에 들어가면 우선 술래학과라는 걸 처음에 운영하게 해요. 주위에 자기처럼 같이 할 친구들을 모집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을 술래 15명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명한테 분산되니까 힘이 좀 덜 들죠.

또 기록을 열심히 해서 블로그에 계속 공유하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을 맡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만났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편이죠.

그래도 책임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과도한 부담을 좀 완충시키는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요. 그게 저희들 고민이고 숙제예요.

### 지지기반으로서의 마을 행정

**류명화** 누구나학습마을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되게 많거든요. 주민센터잖아요. 차라리 바깥에 공간이 있으면서 마을을 움직였으면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부담감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공간의 아우라는 결국 사람들의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이런걸 해도 되냐고, 누구의 명령을 받았으며 동장님이 허락했냐고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빠진 이야기 중 하나는 주민센터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부분을 좀 더 살리는 역할도 우리가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행정이 다 차려놓은 것을 선택하는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우리끼리 몇 명 모여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는 공간으로의 확장을 성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백현주** 저도 학습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의외였던 게, 누구나학습마을 사업을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구조인 거죠. 이게 될까? 동사무소 변신 프로젝트인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

함께 하는 것이 지지기반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걸림돌이자 도전과제인 셈이죠.

**박은미** 사실 마을을 너무 몰랐죠. 일단 수원에 40개가 넘는 동이 있는데 학습관의 입장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와 마을 리더들도 하나의 기반은 아닌가 라고 접근한 면도 있었죠.

**임재춘** 저는 올해 우연한 계기로 서둔동에 공간을 열었지만, 그 공간을 열고 일상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작업자들과 같이 있어요. 육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처지이다 보니 오전에 반짝 나왔다가 오후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후에는 다른 작업자가 와서 하고, 다 사정이 있을 때는 늦게 열기도 하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이 공간이 열려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고 책임감이 낮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실 코디네이터 분들이 맞닥뜨렸던 구조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무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주민센터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모으고 손발이 되어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꼭 같은 코디네이터일 필요는 없어요. 공간의 아우라는 결국 사람들의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김탕** 제가 오늘 똑똑도서관 관계자로 소개되었는데, 똑똑도서관은 건물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운영되는 방식이나 형태는 누구나학습마을과 아주 비슷하죠. 처음 시작했던 건 2007년이예요. 괴산에서 기획을 하고 1호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부딪치는 동네 문제들 때문에 해체가 됐죠. 그리고 몇 군데 도서관이 더 생겼어요. 그 때 저는 기획자로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프로젝트로 뭔가를 움직인다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자’ ‘지속시켜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똑똑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역 안에서 점조직으로 실천하고 얼마만큼 실천이 쌓였을 때, 때가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했죠.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쌓인 것도 없는데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 억지로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도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작업하고 있구나, 느껴질 때 이렇게 밖으로 띄워줘야 하는 거예요.

성과공유회라는 형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마을은 똑같이 주민센터로 가서 긴장된 모습으로 있는 거죠. 사실 긴장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곳이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백현주** 성과공유회는 성과를 드러내고 홍보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과제를 확인하고 진단하거나 조언을 듣는 자리로 기획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터가 떠난 후 남아서 일을 이어받을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두려움, 자기가 주체가 돼야 하는 것에 대한 머뭇거림이 있는데, 뭔가 적나라하고 편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말이지요. 안 하신다고 할까 봐...

### 함께 일 할 사람 만들기

**김성연** 저는 세 분, 세 마을 중에 매탄4동에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원마을르네상스 사업이 한창일 때 코디를 훈련시켜서 마을에 배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농촌에는 마을 간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보통 주민들과 굉장히 겹도는 모습이에요. 들어가서도 주민으로 흡수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이 딱 정해져있죠.

그런데 매탄4동의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코디네이터를 했던 말이지요. 코디네이터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말 자체도 낮설었을 텐데, 주민으로서 그 역할을 맡으셨을 때 분명 장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류명화** 저는 마을주민이다 보니까, 마을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모든 일에 다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건 코디네이터의 일이 아니니까’ 라고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런 감정노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 내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듣고 있으면, 이걸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학습 자원화 전략이라는 것이 학습마을 동아리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큰 틀에서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학습마을 프로젝트가 끝나도, 이 개념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어느 구석에라도 만들어놔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수원시에서 마을 계획을 설명할 때 ‘건고 보고 놀고 배우고’ 라길래 조금 안심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배우고’ 라는 부분이 포함되는 마을 전략이 세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기대치와, 시민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어떤 것이 마을에서 활동할 때 폭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셔도 저는 할 거고요, 저한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장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김탕**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포지션을

바꾸게 되는 경험을 해봤어요. 서울 대림동에 살았는데, 제 작업실이 비는 낮 시간을 공공공간으로 열어두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 한 일 년 뒤에 제가 동네를 떠나게 됐는데,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계속 뭔가를 하더군요. 일본어나 컴퓨터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러다 신도림에서 지역에 있는 학습조직을 찾다가 저희를 발견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을 만들어두었는데, 시의원들이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찾아 나서더군요.

그 조직을 해체하고 그 공간을 비웠는데, 마침 같이 동네에 살던 친구 중 하나가 무슨 마을지원센터에 사업 심사를 갔었대요. 대림 3동 주민센터 자치위원장님이 발표를 하면서 대림동은 이만큼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사진이랑, 디스플레이 한 거, 여기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알리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굳이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해드릴게요.’ 이런 버전으로 가야 멋있어지지 않을까요.

꼭 마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마련했으니까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수준에서 뭔가를 해야 하나. 사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돈나 돈가스 같은 경우가 인상적이었어요. 주민센터 공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많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자, 이렇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원제** 네덜란드에서 도시재생 활동에 열심이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도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주민자치위원장이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쯤 의심해보고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고민으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싸움이 나고, 일이 안되면 예잇! 하고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가, 리더를 세우거나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리더를 세우거나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생겼어. 이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이 더 큰 성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생겼어. 이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이 더 큰 성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 받고 증명하는 성과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싶은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경험

**백현주** 김지영 선생님께선 거의 말씀을 안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김지영**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이면 끝날까?’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오늘은 끝이겠구나’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숙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그간 많이 울어서, 이제 나를 눈물이 없겠구나 했는데….

**신은미** 편안하게 울도록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실패한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역의 여러 문제나 구체적인 사안과 맞물려있어서 공식적 자리에서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애매하게 돌려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이해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주민에게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계속 들어요.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을텐데… 아무리 강력하게 코디로서의 역할이나 미션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큰 부담, 재촉, 일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지만 동이나 학습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어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보이는 것,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겠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했어요. 한 편으로는 분명하게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늘 그 두 마음 사이를 오갔던 거죠.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저의 주도권은 동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상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학습관에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제 일을 쉽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부담스러워 해요. 같이 하자면서 가볍게 왔던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만만찮다, 이 돈 받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나

헌신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계산이 안 맞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망설이다 거절하는 상황이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숫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한 발짝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 노력을 코디들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뒤에서 지원해주셨던 박은미 선생님과, 관과는 다른 모습으로 코디들을 지지해주셨던 학습관에도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박은미** 누구나학습마을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프로그램 한두 개 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각과 경험을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숫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한 발짝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 노력을 코디들이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한두 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각과 경험을 마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컸어요.”

마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컸어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에는 세 분의 훌륭한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의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저희도 보고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거 별로 신경쓰지 마세요, 욕은 저희가 듣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압박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 분들은 마을에서 대단한 지지를 받고 계시고, 그렇게 주민력을 키우는데 힘쓰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간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라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너무 잘 하셨습니다.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배운 것처럼, 조금 놀면서 가볍게 하자는 다짐을 이후 코디 선생님들께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주**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학습관의 역할이 뭘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달라지는 국면이니까

아울러서 코디네이터의 사명이나 목적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세 분 선생님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를 품고 있다 내보내는 엄마의 마음 같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의 엄마 세 분,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다른 모습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누구나학습마을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

글 박은미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습마을 담당자)

2000년대 후반, 대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한 주민자치센터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지요. 결론은 ‘협력적 네트워크, 장기적 안목, 현장중심의 실천과제, 주민의 주체성’이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마을 사업을 할 수 기회가 생기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호기로 가득했습니다.

2011년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입사해 누구나학교를 담당하게 되고, 2013년 누구나학습마을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접했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실제로 해본다는 설렘도 잠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가 버겁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쉽게 변하지 않고, 마을 리더들은 이미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에게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개념이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랐지만 가르치는 것에는 언제나 위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을 꼭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일상 속에 학습이 녹아나, 개인중심 물질중심을 극복한 풍성한 관계가 마을에서 맺어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코디네이터들과 컨설턴트 김미영 대표와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을별 상황에 따라 판을 읽고 설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일은 생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무게감과 현장에서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서로의 신뢰가 쌓기 전에 사업의 무게감이 먼저 밀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코디네이터도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못했었지요. 현장을 알면 알수록 저의 호기는 두려움으로 돌아왔고 맺집은 한없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을 찾기 위해 마을을 누비며 홍보와 마을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주민을 찾아다니며, 어떠한 학습욕구가 있는지 알아보고, 배우고 싶은 주민과 가르칠 수 있는 주민을 연결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마을에서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일하며 코디네이터들은 조금씩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벌어요? 한 오백만 원 받나요?”라고 물어보는 주민도 생겼습니다. 일에 비해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돈이 아닌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코디네이터였지만 사업비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악덕 기업주가 된 듯했습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를 쉽게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갔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먼저 짜여진 틀을 제시하는 것은 마을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의 상황을 존중하고 흐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주마다 진행되는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코디네이터들이 누구나학습마을의 목적과 목표를 놓지 않게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누구나학습마을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별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2~3차년도의 장기적 활동을 통하여, 학습관도 코디네이터도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마을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의 판을 읽을 수가 있었고, 마을-주민의 관계와

학습으로 연결되는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코디네이터는 누구나학습마을을 지지해주는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누구나학습마을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함으로써 함께 배움의 감동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마을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가, 누구나학습마을의 사례를 보고 마을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한 명의 헌신을 요구하기보다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별 상황과 조건이 다를 수 있고, 그 속에 어떠한 구성요소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원시의 누구나학습마을에는 코디네이터 김지영, 류명하, 신은미가 있었고, 컨설턴트 김미영 대표, 수원시평생학습관, 재능공유자, 공간공유자, 마을별 지지자(마을주민,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가능한 누구나학습마을을 위해 주민 주체를 세우는 데에 집중했던 시즌1이 끝났습니다. 이후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주민이 서로 연결되어 즐겁고 유쾌한 마을살이를 지속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함께 사는 삶의 방식으로 누구나학습마을이 자리잡길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 ☺

# 부록

139 마을별 프로그램

142 언론보도현황

144 기획기사모음

## 매탄4동 프로그램

자전거! 타자  
 산드래미 30년 살이  
 임과 친구되어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노신사 이야기  
 장명루 만들기  
 내게 맞는 핸드폰 요금제 찾기  
 돌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송편 만들기  
 중학생이 알려주는 풍선아트  
 재활용 제기 만들기  
 종이가방 만들기  
 꽃과 다문화 이야기  
 보도자료 쉽게 쓰는 방법  
 종이가방 만들기  
 감성코칭  
 꽃과 마을 이야기  
 고수에게 배우는 맛있는 고추장 담그기  
 행복한 미니트리 만들기  
 노세노세 웃으며 놀아 보세  
 동네카페에서 나누는 커피 이야기  
 하하호호 웃으면 복이 와요  
 맛있는 독서토론 레시피 저자와 함께 하는 좋은 그림책 이야기  
 크리스마스리스 만들기  
 다문화 수다방  
 8학년, 우리들의 미술시간  
 내 우산 내 맘대로  
 중1이 알려주는 예쁜 지우개 만들기  
 다문화 우리동네 알아보기  
 청소년 동네 한바퀴  
 타로로 만나는 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EM배우기  
 인터넷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기  
 손재주꾼에게 배우는 리본 만들기  
 그림책으로 행복해지기  
 천연 네일아트 봉숭아 물들이기  
 수다로 푸는 다문화 이야기  
 산드래미 토박이 어르신께 듣는 마을 이야기  
 노세 노세 꽃과 놀아 보세  
 나도 말 잘 할 수 있다  
 누구나 말 잘할 수 있다  
 함께 해서 더 즐거운 시낭송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새싹커피 방향제 만들기  
 도란도란 팔색길 탐험  
 중학생이 알려주는 핸드폰 이니셜 줄안들기  
 추억의 미장원 아카시아 파마 하기  
 첫 아이 학교 보내기  
 나만의 종이 가방 만들기  
 행복한 뜨개질  
 냅킨아트로 파우치 만들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막 에어로빅  
 냅킨아트로 생활소품 만들기  
 천연한방 자운고 만들기  
 우리 모두 하모니~카  
 호박브로치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내 손으로 스킨로션 똑딱  
 공단으로 돈봉투 만들기  
 수생식물 화분심기  
 중학생이 알려주는 이니셜 팔찌 만들기  
 고등학교생이 알려주는 풍선아트  
 다육이 화분꾸미기  
 매탄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풍선아트  
 매탄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페이스페인팅  
 수다와 글쓰기  
 초간편 오이지 만들기  
 손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나누고 배우고(모기퇴치제&손소독제)  
 눈으로 느끼고 소리로 표현하는 독서모임  
 마음으로 만드는 김치만두  
 누구나 쉽게 배우는 데생교실  
 뜨개질로 인형만들기  
 도자기 핸드 페인팅  
 현수막으로 제기만들기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비법  
 천연화장품 스킨 로션 만들기  
 그림책에서 놀아볼까?  
 따숨따숨 뜨개질 배우기  
 벨리댄스로 건강 지키기  
 냅킨아트 작품감상 그리고 배우기  
 작품감상과 립밤만들기  
 작품감상 그리고 뜨개질로 수세미 만들기  
 천연향수만들기

## 조원 1 등 프로그램

광고산 휴지기와 함께하는 도예체험  
입안에서 사르르 맛있는 호박죽 만들기  
넵킨아트로 화분 걸이 만들어요  
간단한 나만의 개인기 풍선아트  
다문화 선생님이 알려주는 한지공예  
마음을 전하는 압화 카드 만들기  
쓰고 남은 식용유로 무공해 비누만들기  
초초보를 위한 탁구강의  
뜨개질  
내 손톱에 그림 그리기, 네일아트  
우리집 건강 간식 견과류 강정 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친환경 아이디어 'EM발효액' 강의  
정말 간단한 막된장 만들기  
요리에센스 맛간장 만들기  
레몬화장수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드는 목공DIY 공예  
봄맞이 우리집 정리정돈  
비즈팔찌 만들기  
카네이션 코사지 만들기  
비즈반지 만들기  
압화 부채 만들기  
재활용리폼공예  
영어 동화책 읽기  
오이피클 만들기  
스포츠댄스&실버댄스  
취나물장아찌  
비즈목걸이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시낭송 하는 법 배우기  
핸드메이드로 리본핀 만들기  
꽃꽂이  
봉숭아 꽃 물들이기  
커피가루 스크럽, 폼클렌징 만들기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 찍기  
아카시아 파마  
폐현수막으로 제기 만들기  
캘리그래피  
사랑나눔 모자 뜨기  
종이가방 만들기  
재활용을 활용한 넵킨강의

올드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소이캔들 만들기  
넥워머 핸드워머 뜨개질 완전정복 하기  
우리 마을 언니 누나들과 책임기  
쿠키만들기  
청소년 성교육  
예쁜글씨pop  
매듭공예  
풍선아트  
강통치기  
투호체험  
내 맘대로 뜨개질  
패션의 완성 비즈공예  
발효비누 만들기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먹는 호박죽  
중학생과 함께 읽는 영어동화책  
생활안전교육  
나의 아름다운 변신 네일아트 완전정복  
꿀비누 만들기  
천연모기퇴취제만들기  
매듭팔찌 만들기  
우리말 어렵지 않아요  
천연색크림만들기  
나도 바리스타  
천연비누 만들기  
양말공예  
딱지치기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한지로 핸드폰 고리 만들기  
립밤 만들기  
부엉이 코사지 만들기  
호박코사지 만들기  
양말인형 만들기  
수세미 뜨기  
미니어처 만들기  
종이접기  
실뜨기  
공기놀이  
죽방울놀이  
퀵트

## 화서 1 등 프로그램

엑셀기초강좌  
양파, 오이장아찌 만들기  
퀵트 부엉이 만들기  
스마트폰 완전정복  
실버댄스  
우리 아이 머리핀 만들기  
전통고추장 담그기  
스마트폰 무작정 따라 하기  
천연재료 비누 만들기  
우드마커스 만들기  
목도리뜨기 만큼 쉬운 핸드워머  
내 손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장식  
에니어그램 나를 찾아떠나는 여행  
화요일마다 스마트폰 따라하기  
속지고댄스동아리와 함께 날 따라해 봐  
코바늘로 아크릴 수세미 뜨기  
열린극장-미스리틀선사인  
에니어그램-내 아이의 성격 알기  
대바늘 코바늘 뜨개  
네추럴&동인 메이크업  
러블리 팔찌 만들기  
봄! 상큼한 네일아트  
쓸모있는 주방장갑  
학교적응과 학부모의 역할  
20년만에 극장에서 영화보기  
카네이션 볼펜 만들기  
확서신협과 함께 하는 어린이 경제교실  
누구나 함께 책임기  
도예체험 나들이  
공감소통 대화법  
여름 이미지 메이킹  
해외직구, 할 만한가요?  
3D 눈썹 메이크업  
패브릭키홀더만들기  
새끼 손가락 봉숭아 물들이기  
매혹적인 여우라인 아이라인 메이크업  
극장에서 영화보기 '명량' 못 본 사람 다 모여  
천연한방삼푸&자운고 만들기  
숫자를 찾아라  
목공공구 사용법 배우기  
지구와 내 몸을 살리는 팬티라이너  
자고 있는 아이쉐도우 깨우기  
부엉이 브로치만들기

스마트폰 사진찍기 tip  
포장끈으로 만드는 종다래끼  
귀여운 마카롱 동전지갑  
주옥경표 샌드위치 만들기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  
기초부터 제대로 눈썹 그리기  
나무심지 소이왁스캔들  
퀵트크리스마스 트리  
수면양말 실로 뜨는 넥워머  
헤어컷트 시범과 설명  
아빠가 가르쳐주는 PPT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예쁘고 편리한 핸드워머  
스마트폰 카메라와 친해지기  
점심 먹고 핸드드립 커피  
작은 재능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천연화장품 에센스 만들기  
유용한 생활자수 배우기  
봄맞이 유리화기 꽃꽂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뜨개인형  
천연화장품 섁크림만들기  
스마트폰 카메라에 봄꽃담기  
된장 담는 날  
된장 뜨는 날  
동양 꽃꽂이 -기초  
산가지 놀이  
작은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버블리 자운고&모기 기피 스프레이  
시골벽적 아나바다 장터  
페이스 페인팅  
부엉이 키홀더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요가  
여름 별미 열무김치 담그기  
해외직구 해봤나요?  
스마트폰 차근차근 배우기  
우리가 쓰는 에너지  
쉽게 알아보기 고등학교 배정  
스마트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퀵트 요요브로치 만들기  
같이 영화보기 '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꽃꽂이  
엄마랑 아이랑 책임기  
퀵트 비버필통 만들기

일자	언론사	기사명
13.6.18	e-수원뉴스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3.7.5	e-수원뉴스	누구나학습마을 만들기, 관계자 간담회
13.7.8	수원시민신문	수원시평생학습관, '마을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워요'
13.7.10	수원일보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워요
13.7.11	수원일보	[영통구]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첫 걸음
13.7.16	이뉴스투데이	수원시,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추진
13.7.22	e-수원뉴스	화서1동 '누구나 학습마을' 운영위원회 준비 회의
13.8.13	e-수원뉴스	매탄4동 '릴레이 누구나 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13.8.19	e-수원뉴스	이웃이 선생님, 매탄4동 '릴레이 누구나 학교'
13.8.22	e-수원뉴스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배운다
13.8.26	e-수원뉴스	화서1동 주민자치위원회, 누구나학습마을 협약 체결
13.8.27	아시아뉴스통신	수원시, 주민과 함께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개최
13.8.27	미디어와이	수원시, '누구나학습마을 여는마당' 개최
13.8.27	e-수원뉴스	누구나학습마을, 3개 마을과 업무협약
13.8.28	수원일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마을'
13.8.28	환경일보	매탄4동 '릴레이 누구나 학교 3탄' 행복한 학습
13.8.29	수원일보	매탄4동 '릴레이 누구나 학교' 개최
13.8.29	e-수원뉴스	릴레이 누구나 학교 3탄' 행복한 학습은 계속된다
13.8.30	e-수원뉴스	누구나학습마을로 달라진 마을 모습 기대하세요
13.9.2	환경일보	수원 영통구, '누구나학습마을' 개최
13.9.16	e-수원뉴스	화서1동에서 '누구나학습마을'이 열렸어요
13.9.16	e-수원뉴스	매탄4동, 다문화가정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13.9.27	e-수원뉴스	아기자기한 배움에 빠진 화서1동
13.10.10	e-수원뉴스	누구나학습마을 협력기관 현판식 개최
13.10.14	수원일보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현판식
13.10.17	e-수원뉴스	누구나학습마을 프로그램 주민 호응 커
13.10.29	경기신문	누구나학교'에서 재능 나눴어요
13.10.29	뉴스1	수원시, '누구나학습마을' 운영
13.10.29	연합뉴스	주민이 강사이자 수강생... '누구나학교' 인기
13.10.29	e-수원뉴스	정말? 나도 평생학습 강사가 될 수 있다고?
13.10.30	수원일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어 좋아요
13.10.30	인천일보	수원시민 재능기부 평생학습 눈길
13.10.31	포커스	[이동주의 굿모닝] 2013년 10월 31일
13.11.1	기호일보	수원시 화서1동 등 4곳 '누구나학습마을' 프로 운영
13.11.11	경기신문	[시민과 사회] 누구나학교가 마을로 온다

일자	언론사	기사명
13.11.13	인천일보	장안구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업무협약
13.11.14	내일신문	누구나 이웃이 되는 열린 공간, 소통의 시간
13.12.5	e수원뉴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한지공예' 강좌 열려
13.12.20	e수원뉴스	마음을 전하는 압화 카드 만들기
13.12.27	e수원뉴스	사랑 넘치는 화서1동 동말 '인정도 푸근'
13.12.30	e수원뉴스	스마트폰 똑똑하게 사용하기 강좌
13.12.31	e수원뉴스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 개최
14.1.22	e수원뉴스	매탄4동, 커피향과 함께 누구나학습마을
14.1.28	e수원뉴스	나도 명강사가 될 수 있다고?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습 나도 보고회'
14.2.17	한겨레뉴스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강의할 수 있어요
14.3.28	e-수원뉴스	우리는 8학년, 즐겁고 재미난 미술시간
14.4.4	e-수원뉴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요리에센스 맛간장만들기'
14.4.14	e-수원뉴스	피부에 좋은 레몬화장수 만들기
14.4.18	e-수원뉴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정말 간단한 막된장 만들기'
14.4.29	아시아뉴스통신	수원시 장안구, '우리 집 정리정돈하기' 강좌 열어
14.4.29	e-수원뉴스	봄맞이 우리집 정리정돈하기 강좌 열어
14.5.7	KTV 국민방송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누구나 학교'
14.6.30	e-수원뉴스	주민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요
14.7.1	뉴스코리아네트워크	팔달구 소식 [7월 1일] - 화서1동「누구나학습마을」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4.8.7	e-수원뉴스	'매탄4동 누구나 학습 마을, 'KBS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촬영
14.8.19	뉴스1	화서1동 주민센터, 23일 '동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14.8.26	중부일보	활기 가득...수원 화서1동 '동말 어울림 축제'
14.10.21	e-수원뉴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행복담은 꽃꽂이' 강좌
14.12.3	경기일보	열정 가득한 아름다운 노년 세상을 그리다
15.3.11	e-수원뉴스	마을을 보는 발칙한 상상력, 마을인문학강좌 열려
15.3.12	투데이경제	수원시 매탄4동, 마을을 보는 발칙한 상상력 '마을인문학'강좌열려
15.4.1	e-수원뉴스	놀이 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 신난다
15.4.8	e-수원뉴스	문탁 네트워크의 실험을 배우다
15.6.25	e-수원뉴스	조원동 '누구나학습마을' 16세소년 영어 재능기부 선생님
15.7.21	e-수원뉴스	이젠 재능기부가 아니고 재능공유의 시대
15.8.11	e-수원뉴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어서 좋아요"
15.9.10	e-수원뉴스	우리들이 기획하는 축제 "조원동은 지금 한껏 들떠"
15.11.9	중부일보	수원시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성료
15.12.15	e-수원뉴스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공유 한해 마무리
15.12.15	e-수원뉴스	"올해는 배웠지만 내년에는 내 지식도 나누고 싶다"

## 아름드리 고목같이 마을에 뿌리 내린 사람들

### 산들레미, 나무가 산이 되어 사람을 모으다

매탄 4동에 가면 '산들레미('산들레미'라는 의미로 추정)'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우리를 맞이한다. 근대화로 산은 사라졌지만, 언어가 산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언어를 나누며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누구나 함께 하는 새로운 시간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던 날도 그랬다. 나무 근처에 가자 솔솔 음식 냄새가 풍겨왔고, 장용옥 통장님을 통해 마을 행사를 위해 한창 음식 준비 중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마을 행사의 음식을 직접 준비하신다니! 해가 갈수록 싸고 편리하게 음식을 준비할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변함없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그 과정이 곧 함께 하는 마음을 빛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보니 장용옥 통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본 마을의 모습은 다른 주택단지들과는 조금 달랐다. 간판 이름들도 정겨웠고, 가게들의 모습도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같은 느낌이 들었다. '품'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민족이기는 하지만, '농업'이라는 중심점을 잃은 현대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은데, 평범하면서도 어딘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마을의 분위기에 궁금증을 느끼며 장용옥 통장님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 애정과 신뢰, 누구나학습마을의 원동력이 되다

10년.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십 년은 긴 시간이다. 그런데 장용옥 통장님이 마을 일을 하신 시간은 무려 15년 정도. 사람도 아닌 자연이 변하고 절반을 또 변한 시간. 그래서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여쭙보았다. 어떻게? 왜? 그러실 수 있었는지 말이다. 통장님의 대답은 간결했다. 어릴 때 환경 때문이실 거라고. 공무원이신 아버지와 포목점을 하시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하면서 지역 공무원의 딸인 만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포목점의 딸인 만큼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셨단다. 하지만 통장님의 활약상을 보면 같은 배경을 가졌다고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누구나학습마을 기사를 기획하면서 장용옥 통장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통장님이 하셨던 치매예방 그림치료 때문이었다. '8학년 미술시간'이라고도 불리는 그 수업이 열리게 된 과정은 이렇다. 어느 날 신현옥 치매협회장님을 통해 그림치료를 알게 되

셨고, 마을 어르신들이 떠오르셨단다. 통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공자도 아닌데 덜컥 그렇게 수업을 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엄두가 안 나셨겠지만, 통장 일을 하시다보니 마을 분들의 삶을 가깝게 알고 계셨고, 어르신들은 개별방문을 해야 하는 때가 많아 가깝게 지내시다보니 '그분들'께 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누구나'라는 표현은 재미있고도 절묘하다. 문법적으로는 '아무'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뜻하고, '누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뜻한다. 알지 못하

면서 '누구'라고 가리킨다는 것은 대상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상이 마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상을 아직 알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개방적이지만 마음 속에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관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장용옥 통장님의 경우 그 관계에서 쌓인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그 무엇이 라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매탄 4동 인터뷰 초반에는 전통과 현대의 관계를 의식하며 누구나학습마을을 살폈지만, 인터뷰 끝으로 갈수록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들 전통이 끊어졌다, 사회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통과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문제인 것. 결국 애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누구나 학교를 비롯하여 한 사람의 삶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재미와 모험이 가득 찬 제2의 인생을 열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언젠간 젊은 시절에 하던 일을 그만 두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평생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나 평생 염원했던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김연수 선생님과 만남은 그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나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모험적일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셨다.

선생님의 젊은 시절 직업은 언론사 엔지니어. 말하기, 글쓰기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기서 글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이란단다. 일의 특성상 보도 자료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셨고, 잘 쓰지는 못해도 좋은 글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셨다고 하셨지만, 그 '말과 글'로 강의를 여시고 더불어 제2의 인생을 여시게 될 거라고는 아마 모르셨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는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보면 단박에 느껴지고, 그것이 얼마나 모험적인지는 당장 내가 절대 못할 것들의 목록을 적고 60대 이후에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을 처음 접하실 당시에는 퇴직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누구나학습마을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제2의 인생을 열게 되셨다는... 선생님은 지금 수원 시민 전체의 시민기자화를 꿈꾸신다. 기사를 쓸 수 있는 시각과 사고력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힘이 될 것!

사실 강사님과 인터뷰 내용 중에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학습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었다. 바로 즐거움과 희망. '누구나'라고 하니 '아무나' 같지만 그 '아무나'가 '누구나'가 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일 것 같다.

#### 두레밥상: 밥을 푸고 글도 푸고 마음도 푸다

코디네이터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학습관을 통해서였다. 그랬기 때문에 학습관 밖에서, 그것도 딱히 공간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그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무척 궁금했다. 인터뷰에 앞서 류명화 코디네이터님보다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인터뷰 중에 류명화 코디네이터님과 두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두 번 모두 마을 분들과 식사를 하시거나 독서토론을 하고 계셨다. 언뜻 보기에는 일상적인 풍경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자리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 라틴어 어원에 따르면 '공공(푸베스, Pubes)'의 어원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성숙성을 의

미하며, 개인(Private)은 박탈을 의미하는 라틴어 프리바투(Privatus)에서 유래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로서는 ‘공공’의 장이 인간에게 그만큼 본질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



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은 마을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다. 각자 생각은 있지만 꺼내놓기 쉽지 않고, 꺼내놓아도 잘 듣고 나누는 사람도 적고, 사실 얼굴 맞대고 그런 얘기를 꺼내놓을 자리 또한 만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매일 도시락을 나누는다는 것, 매 주 좋은 책을 정해 함께 읽어내려간다는 것은 밥과 글을 통해 마음도 푸는 일이고 그런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이 모이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류명화 코디네이터님이 계셨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아래 거대한 뿌리, 그리고 그 거대한 뿌리를 이루며 받치고 있는 작은 뿌리들의 단단한 열개 관계라고 알고 있다. 시대가 변해 산은 사라지고 나무만 남았지만, 매탄 4동의 누구나 학교는 사람을 둘러싼 나무를 사람이 둘러싸면서 도시 속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시민 중심의 누구나학교가 전통의 색채와 어떻게 어우러질까 고민하며 시작한 인터뷰였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얽혀가며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기획] 누구나학교, 마을을 만나다(2):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2014년 11월 14일 / 글 이소영(평생학습아카이브 필진)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씩 충실하게 마을에 살기

‘나’가 아닌 ‘누구나’가 보여주는 힘을 찾아서



타요 버스를 처음 탔을 때, 남몰래 웃었다. 부모가 될 나이이지만, 나도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화의 성장배경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봉건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기로, 스스로 모든 것을 결

정해야 하는 ‘자유’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고독의 근원이기도 했다는 것. 그 속에서 만화는 상상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원 1동 인터뷰를 준비하며 만화를 떠올렸던 것은 아마도 그 속에서 비슷한 변화의 힘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이렇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특별한 공간이다. 집을 살 때도 아파트를 사야 돈 좀 모을 줄 아는 사람이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임대냐 아니냐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자고 할 만큼 아파트는 소비주체로서 경쟁하게 되는 또 다른 장이다. 그러나 조원동은 좀 달랐다. <누구나학습마을> 교실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간을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공동체 속에서의 ‘누구나’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소비주체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았다. 그 결정을 하게 한 힘

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소비주체로서 늘 경쟁해야 하는 고독한 '나'가 여러 사람 속의 '누구나'로 변화하는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인터뷰에 들어갔다.



### 누구나 누구누구 엄마인 동네

“도대체... 왜?”

인터뷰 때마다 늘 궁금한 부분이였다. 급여도 없고 대단한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간식비와 준비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들 그리 열심히 하시는지 말이다. 그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어서 황덕규님에게도 물었지만 역시나 대답은 ‘즐거워서!’. 사실 ‘즐거워서’는 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많이 듣

게 되는 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황덕규님의 경우 처음부터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원래는 친구의 소개로 마돈나돈가스(조원동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넵킨아트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SNS로 수업 제의를 받아 리본공예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그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엔 한 번만 더 이어서 할까 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감으로 계속 수업을 여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지며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 처음엔 그 답을 듣고 ‘능숙’해질 만큼의 능력 신장과 딸에게 능력 있고 행복한 엄마로 보이는 즐거움도 있었을 거라고 혼자 짐작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숨

어 있었다.

리본공예 수업을 한 후 종종 길에서 수업에 참석했던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다 ‘누구누구 엄마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는 황덕규님이 이웃집 아줌마이기에 가능한 일. 아마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선생님이기만 한 세상과 이웃 아주머니 누구라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세상은 분명 다른 세상일 것이다. 실제로 황덕규님의 수업 일정 속에는 매월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의 수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웃집 누구에게라도 선생님이 되고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준비를 좀 덜 해도 전보다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으면서도 이제는 그 수업준비를 위해 기획회의까지 하신다는 것이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집단에 따라 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찾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획회의가 필수라는 것. 바로 그 ‘필요’와 개별 특성에 맞는 지도를 위해 합심해주시는 어머님들과 함께 기획회의도 하고 수업도 진행하신단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고유함도 소중하지만 그런 ‘나’가 누구라도 누구누구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은 가능성의 삶이자 또 다른 행복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 한 사람의 노력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편지지가 몇 장 벽에 꽂혀 있다. 드림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갔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물건이다. 한쪽 벽 선풍기 아래 꽂혀있었는데 구석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눈이 끌렸다. 다가가서 찬찬히 내용을 읽어보니 소년원에서 보내온 편지. 소년원에서 필요한 개인물품을 센터장님께 부탁해온 것이다.

다른 많은 수업들과 함께 황덕규님의 리본공예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조

원동 드림지역아동센터는 그야말로 지역아동들의 공간이다.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에 아직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예전에 유사 공간들이 갖던 이미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등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해 그 구성원도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다. 누구나학습마을의 공간이자 누구나학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축에 힘쓰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어서 오히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와 누구나학교를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센터장인 이영숙 관장님은 평범하지 않은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개인적인 부분이라 다루기는 어려워도 결혼 과정도 그랬지만 쪽 살아오신 과정 역시도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용기가 드림지역아동센터의 기반이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만병통치약의 공통점은 실체와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약보다 그 약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행동이 그 약의 존재를 믿게 해주기 마련이다. 사랑으로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의 드림지역아동센터가 가능해졌는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선이나 행동의 장이 자신의 영역으로만 한정될 수도 있는 누구나학교도 좀 더 폭 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용기로 그 장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누구도 누구나학교의 학생이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 함께 만드는 힘, 서로를 키우는 힘

처음엔 인터넷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었지만 앤이라는 성함이 실명이었고 마치 빨간 머리 앤 같은 미소로 반겨주신 독고 앤님. 현재 <산내음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아파트 공간을 누구나학습마을 교실로 공유하는 데에도 함께 하였고 영어로 누구나학습마을 수업을 여시기도 했다. 조원 1동 인터뷰 시작 때는 변화를 기대했었지만 독고 앤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변화라는 것이 A에서 B로의 변화와는 다른 차원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특별했던 점은 인터뷰 내내 독고 앤님 자신보다는 누구나학교 전반이나 시민활동, 시민의식 등 어떤 화제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점. 어떻게 누구나학습마을에서 수업 등 여러 관련 활동을 하시게 되었냐고 질문을 던지자 담담하게 정리해 말씀해주셨다. 더 젊었던 때에 열심히 살았던 것이 모여서 현재에는 현재에 맞게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이 기반이 되어 현재 또 어떤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들며 그런 식으로 인생이 채워져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 공간 열기에 대해서도 그 시작은 함께 하는 탁구였다고 말씀하실 때는 참 재미있었지 하는 미소와 함께 눈빛을 반짝이셨지만,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공용시설이니까 공유하는 것이라는 맥락의 답을 해주셨다.

하기는 그렇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실험과 이론을 보아도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거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인 만큼 공유지나 공유물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들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는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애들이 다 똑똑한 데 굳이 우리 아이까지 한 반의 일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가 다 반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26개의 각기 다른 분야의 1등이 되면 되는 거지. 성적 하나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좋

아하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와중에도 끊임없이 서로서에게 소개해주고, 혹 부족한 면이 있을까 살피는 김지영 코디네이터님은 존재 자체가 활력소였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저 말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싶다. 각자가 각자 자리에서 1등이 되는 거 그리고 서로를 키워주는 거, 그런 사랑으로 그게 삶이 되고 그래서 더 행복한 누군가가 되는 것. '변화'라는 다소 거대한 뭔가를 찾아 나섰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나'이자 '우리'이자 '누구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

### [기획] 누구나학교, 마을을 만나다(3):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2014년 12월 30일 / 글 이소영(평생학습아카이브 필진)

## 책임과 존중으로 함께 걷는 마을

얇고 잔잔한 강은 강물의 생명체들을 씻겨주며 먹여살리고, 깊은 거센 강줄기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강물들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하지만 바다가 강물인 순간 그 강물들은 자신이 바다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흐르다 어느 순간 모두 모여서 서로의 언어들이 섞이며 고요 속에서 더 큰 생명체를 품는 바다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누구나학습마을 탐방기의 마지막 장소인 화서1동에서 했던 생각들이다. 화서1동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자치적인 마을 움직임이 많은 곳이었고, 그 각 움직임들이 서로 조화와 협력을 잘 이

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마치 땅 곳곳을 어루만지던 강물들이 한 줄기 한 줄기 더 큰 강물에서 모이는 것처럼 말이다.

### 저마다의 필요에 맞춘 한 발자국

화서1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새마을문고이다. 70년대 생인 나에게 '새마을 문고'는 책을 가져가야 하는 곳으로만 기억에 남아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도 새마을문고가 있다는 것이 새로웠고, 기사 준비를 하며 돌아보니 모든 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가 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 겸사겸사 둘러보니 주민센터 별 새마을문고는 다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화서1동의 '새마을



화서1동 새마을문고 강의실 모습

문고'는 책을 가져가야 했던 어린 시절의 '새마을문고'와는 다른 곳이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서1동 새마을문고는 도서뿐만 아니라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히 책들을 살펴보면 모든 책들이 십진분류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에 아기자기한 환경과 마음과 국민이 서려있는 듯한 도서 구성도 눈에 띄었지만, 강의실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새마을문고를 담당하고 계신 새마을문고회장 엄미화님에게 여쭙보니 그 곳은 학습관으로서 마을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의들이 진행되는 곳이었다. 새마을문고회장님께서 필요에 맞춰 강의를 구성하고 강사를 초빙한 후 수업이 진행되는 데 그 수업에 대한 흡입력은 여러 학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영어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새마을문고에서 이렇게까지 활동을 확장시키신 이유가 뭘까? 회장님의 대

답을 요약하면 이렇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다음엔 다른 아이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발은 어머니로서의 필요. 내 아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마을 아이들로 커지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도 조금씩 손을 잡고 저 집 아이가 우리 동네 아이가 되며 현대적 의미의 ‘동’이 아니라 인간을 품은 ‘마을’을 이뤄가고 있다고나 할까.



화서1동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

이런 움직임은 화서성당의 마중물이나 화서신협, 푸른숲 아파트 모임, 영광문고 활동, 다문화센터 독서모임처럼 이미 마을 곳곳에 내재하고 있었고, 이런 모임들이 자치 모임을 이어가며 누구나학습마을과도 연계를 맺고 있었다.

그 자치 활동의 호응도는 마트

에서 일하시는 분이 짬짬이 얻는 쉬는 시간에 달려와 독서모임을 하시거나 교대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이 그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하실 만큼 뜨겁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들의 영향 때문인지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에서의 활동들도 다른 곳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학습마을을 돌다보면 늘 나오는 아이템 중 하나가 뜨개질이다.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뜰 수 있는 수세미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꽃 모양 모티브를 뜨거나 원피스 모양 등등을 시도하지만 이곳



은 장갑 모양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실제 주부들의 필요를 감안하여 인터넷을 참조하며 누구나학습마을 수강생들이 고안해낸 것이란다. 그 도안은 물론 인터넷에 있었겠지만, 자신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누구나 강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이 다시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누구나학교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았고, 누구나학습마을 사무실 아래층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송보혜 주무관도 같은 입장이었다. 틀이 짜여진 주민자치센터 수업과는 달리 기간이나 아이템 모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같이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누구나학교의 매력이라는 것.

### 책임감과 존중으로 함께 걷다

필요에 따라 한 발자국씩 적극적으로 내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그 한 발자국들이 모여 다시 새로운 큰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그룹이 모이면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신경전들이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고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서로 연계가 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여러 부분들을 흘깃흘깃 살펴봤었다. 그러나 답은 언제나 사람.

명령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사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그만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 속 여러 움직임들의 관계가 그런 명령과 순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일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사안에 따라 분명 주도권을 잡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결

국은 그 과정에서 서로가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인터뷰 중 내내 흘깃흘깃 찾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는데 부녀회장 이성숙님까지 오시고 나자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화서1동에서 인터뷰 했던 분들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카리스마가 더 넘치는 편이었다. 새마을문고 회장님도 들어서는 순간 ‘아이 분이 새마을문고회장님이시구나’ 싶었고, 김장을 담다가 귀여운 주방용 모자까지 쓰고 오신 부녀회장님은 귀여운 모자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뭔가가 있으셨다. 심지어 마을 신은미 코디네이터님까지도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뭔가 단단한 외유내강의 힘이 느껴지는 분이셨다. 해서 내심 이런 분들이 다 모이시면 목소리가 커지시기 쉬울 텐데 싶었지만 이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웃음소리를 높이셨다. 얼마나 서로 웃으며 떠들었는지 나중에는 다른 분들까지 ‘나만 빼놓고 뭐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하고 들어오셨을 정도였다. 게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팬이라고 어찌나 부여안으시던지 인터뷰하는 과정이 좀 외롭게 느껴질 정도였다. 결국은 못 견디고 ‘저는 뭐 좋은 점이 없나요’라고 졸라서 좋은 이야기 하나 듣고서야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을 만큼 말이다.

결국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도 무너지게 하는 것도 사람. 각자의 필요에 따라 열심히 달려오신 그 분들은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는 화통하고 힘차게 단,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로를 부여안으시던 모습처럼 존중하면서 어우러지며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다.



좌측부터 새마을문고 엄미화 회장,  
새마을부녀회 이성숙 회장,  
신은미 코디네이터

### 참 좋은 우리의 출발은 참 괜찮은 나

이 세상 어머니의 수만큼 요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같은 요리를 해도 각각의 살아온 삶의 경험과 거기에 담긴 마음에 따라 다른 맛을 내기 때문일 것이다. 각 마을의 모습도 그랬다. 어떤 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나무처럼 마을이 풍성하게 숨 쉬고 있었고, 어떤 마을은 공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오늘을 만들고 있었고, 화서1동은 각자의 힘찬 걸음을 함께 하며 각자에게 참 좋은 ‘우리’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참 괜찮은 나’와 그래서 ‘참 좋은 우리’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연계점이 되었던 신은미 코디네이터는 내년에는 2015년에는 누구나 ‘나서는’ 누구나학습마을이 되기를 꿈꾼다고 한다. 🍵

##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만든 사람들

**매탄4동** 강영신 강윤성 경유림 고세영 김규리 김동숙 김민지 김석태 김설화 김성진 김소라 김연수 김영선 김옥희 김윤자 김지영  
김진옥 김혜미 남경희 노문선 박나현 박 달 박형순 배은주 백종민 서경옥 손채수 송주희 안효진 유혜린 윤금주 윤태관 이기원  
이병덕 이병덕 이소영 이안자 이은주 이필대 이호준 임지을 임지훈 장대현 장용욱 장희숙 전말연 정정숙 정혜진 조진행 최기원  
추명순 한근순 한석규 한선미 한소현 한주형

**조원1동** 강금선 강남희 강영신 곽민서 길하나 김미서 김민아 김민정 김병수 김수현 김영소 김은영 김은희 김인숙 김지영 김진아  
김하은 김한별 김효임 김희연 노유미 독고앤 민영희 박경실 박선영 박정원 박희자 배숙녀 서광석 서정남 손은홍 송민희 신경우  
안문자 안영욱 양훈도 오명순 오승택 오유미 오유빈 윤금주 윤명희 윤희진 이기쁨 이기자 이매화 이명숙 이미숙 이민복 이복순  
이아현 이영숙 이은서 이은주 이정금 이지수 이해영 장선자 전미령 정보라 정순욱 조연정 조윤정 하상봉 한태정 황규덕 황선우  
황재봉

**화서1동** 강도희 강민지 강주선 강준구 강혜웅 곽경아 곽진희 권민영 김갑균 김미라 김미향 김선미 김세욱 김수경 김순이 김슬비  
김승중 김연정 김영철 김윤숙 김정연 김지희 김진희 김혜림 김효연 리은소연 박상민 박선영 박종복 서승룡 송병선 송보혜 송재규  
신민철 심인숙 안병철 양주현 양혜숙 엄미화 엄미희 원증연 유영선 유순규 유윤희 유혜숙 육근영 윤미나 이경미 이명수 이미영  
이상영 이상숙 이성희 이윤미 이정원 이종숙 이한일 이희정 장영미 정소년 조기동 조미란 주옥경 차선화 최미자 최순영 최영주  
최옥남 최옥분 최은선 최태량 한민석 한배수 한주은 허가람 허선화 허 진 홍승자 황정하

김미영 김지영 류명화 박은미 신은미

2013~2015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누구나학습마을

**펴낸날** 2015년 12월 28일  
**펴낸이** 정성원  
**펴낸곳**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 수원시평생학습관  
**편집** 유선 박은미 백현주  
**일러스트** 송희 권소희  
**디자인** 방민정

**수원시평생학습관** 주소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 **전화** 031 248 9700 | **팩스** 031 248 9902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 | **아카이브** www.wasuwon.net | **페이스북/트위터** @suwonedu